2010.10.27 No.82
gonggam.korea.kr

GROUP OF 20 Let's go!

규제 장벽 넘어 p25~47
공정·편리·합리적인 사회로!

2010~2012 한국방문의 해

"당신의 미소로 한국을 선물하세요"

SMILE KOREA

2010~2012 한국방문의 해
홍보대사 김연아

규제개혁 통해 '작은 정부' 실현

지난 20년간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1970년대 8퍼센트를 넘나들던 잠재성장률은 80년대 중·후반을 정점으로 뚜렷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주된 요인은 자본형성 및 생산성 증가율 둔화에 있다. 생산성 측면에서도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정부 제도혁신의 부진과 낮은 수준의 사회적 자본이 그 원인으로 보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은 정치, 경제, 사회 등에서 전면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압도적인 불확실성에 직면한 개인과 기업은 안전 지향의 보수적인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정치, 경제, 사회의 역동성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물론 그에 대한 반발로 폭발적인 격변의 분출도 부분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격변에 대응해야 할 중요한 주체인 정부의 역량과 수단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정부는 민간의 부실을 떠안게 되어 재정 압박이 커졌다. 기업 규제와 국민의 동원 역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만큼 환경의 변화가 빠르고 불확실하다.

금융위기로 야기된 글로벌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규제개혁 차원에서 우선 필요한 조치는 규제혁파다. 일단 현 시점에서 기업과 국민에게 부과되는 규제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규제혁파는 그 자체가 내수 부양대책의 주요한 부분이 된다.

행정규제기본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규제영향분석(RIA), 규제정비, 규제개혁위원회 사무국의 전문성 등을 법 정신에 부합되게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또 실현하려는 각성 역시 시급하다. 규제개혁 시스템이 유명무실하면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규제개혁이 불가능해지고, 정략적이며 편의적인 규제완화와 규제강화의 불협화음만이 성행할 것이 자명하다. 규제개혁이 사회통합을 이루기는커녕 평지풍파(平地風波)만을 불러일으킨다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궁극적으로 규제개혁을 통한 '작은 정부'를 실현해야 한다. 작은 정부는 꼭 해야 할 기능만을 선택적으로 수행하는 절제력이 있는 정부를 뜻한다.

무엇보다 재정지출과 규제를 절제하는 정부가 진정한 의미의 작은 정부다. 작아야만 유연할 수 있다. 결국 규제개혁을 통한 작은 정부가 금융위기 이후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방책이라고 본다. G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Weekly
2010.10.27
No.82(통권 183호)

Contents

표 지 이 야 기

인기 아이돌 가수 20명이 부른
서울 G20 정상회의 기념 캠페인 송
'렛츠 고(Let's Go)' 앨범 재킷과
'Let's go G20 콘서트'에 참여한
아이돌그룹 2AM.

26 일러스트 · 황중환

08

http://gonggam.korea.kr

발행일 2010.10.27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유인촌
제작협력 동아E&D
인쇄제본 삼화인쇄(주)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집

더욱 공정하고 편리하고 합리적인 것

고맙다! 규제개혁

'규제개혁' 하면 뭔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막힌 길을 뚫고 굽은 마디를 펴며 묶인 맥을 풀어주어
능력껏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규제개혁입니다. 기업의 숨통을 틔워 일자리
만들기와 투자를 활성화하고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매끄럽게 만들며 국민의 일상생활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해주는 정부의 보이지 않는 손길,
그것이 규제개혁입니다. 국민 모두 더욱 공정하고 편리하며
합리적으로 느끼는 그날까지, 규제개혁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Weekly 공감 편집실(gonggam@korea.kr)과
홈페이지(gonggam.korea.kr),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 코리아(www.korea.kr),
정책공감(blog.daum.net/hellopolicy),
청와대(www.president.go.kr) 등에
올라온 독자의 편지와 댓글입니다.

〈Weekly 공감〉 81호(10월 20일자) 기획특집 '1988 올림픽, 2002 월드컵 그리고 2010 F1'과 관련해 많은 독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F1, 국가브랜드 높이는 성공적 잔치 되길

"연예인 카레이서인 탤런트 이세창과 류시원 씨 인터뷰 기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카레이싱 하면 굉장히 위험하고 사고가 많이 나는 스포츠로 알고 있었는데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 오히려 여느 스포츠보다 사고율이 적다는 것도 새롭게 알았습니다. F1 코리아 그랑프리가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성공적인 잔치가 됐기를 기대합니다."_김진

"기획특집에서 다룬 2010 F1 코리아 그랑프리의 가치와 위상을 〈Weekly 공감〉을 통해 비로소 알게 돼 유익했습니다. 그동안은 올림픽과 월드컵만 알았지 사실 F1이라는 스릴만점의 '액션'까지도 세계 3대 스포츠 대회로 꼽힌다는 건 몰랐거든요.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커다란 국제행사가 더욱 많이 개최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_홍초롱

81호 '4대강 사업, 배춧값 상승·수도요금과 무관' 기사를 읽고 독자가 보내온 의견입니다.

"객관적인 안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는 요즘입니다. 배추 파동이다 복지예산 삭감이다, 인천공항 매각이다, 씁쓸한 소식도 많이 전해지는데요. 가만히 보니 각 사안을 놓고 객관적인 분석과 거리가 먼 정치적인 해석들이 난무하는 것 같습니다. 서민 생활, 나아가 국가 이익과 직결되는 부분은 정확한 사실 파악과 좀 더 신중한 접근과 분석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_정신욱

81호 '예술과 전통시장이 만나면' 기사를 읽고 독자가 보낸 의견입니다.

"시장 하면 뭔가 고리타분한 곳이라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국민 처지에서 크게 보면 참으로 보물창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처럼 물가가 많이 오르고 서민들이 힘겹게 살 수밖에 없는 경제상황에서 유일한 위로의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하루 빨리 거듭나서 대형마트, 백화점과 제대로 경쟁하기를 바랍니다."_윤석원

81호 '다문화가정 출신 첫 프로축구 선수 강수일' 기사를 읽고 독자가 보내온 의견입니다.

"한마디로 자랑스럽습니다. 편견을 딛고 일어선 강수일 선수의 성장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그간 다문화가정 출신 사람들에게 우리는 너무나 냉정했다고 생각합니다. 피부색이 다르지만 엄연히 한국인의 피가 흐를 텐데 왜 그걸 깨닫지 못했을까요. 오히려 다문화가정 출신들이 한국을 더욱 보기 좋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강 선수, 꼭 국가대표가 돼서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에게 이 땅이 살 만하다는 희망을 심어줬으면 합니다."_정동욱

'모터스포츠의 꽃' F1
전남 영암서 스타트

예술과 전통시장이 만나면…

알립니다

2010 세계 대학생 리더십 대회가 열립니다

1백여 개국의 세계 대학생 리더들이 참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2010 세계 대학생 리더십 대회’가 열린다. 우리나라에 유학 중인 외국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대회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널리 알리고, 참가자들이 우리나라 민간 홍보사절단이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목적으로 개최된다.

행사 일정 | 10월 28~31일
행사 장소 |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주리조트
참가 대상 | 외국인 대학생 1천명
행사 내용 | 1일차(10월 28일) ‘2010 세계 대학생 리더십 대회’ 개회, 세계 대학생이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 토론. 2일차(29일) 세계 대학생 비즈니스 특강. 3일차(30일) 어울림 축제 한마당 ‘지구촌 페스티벌’. 4일차(31일) 전주 한옥마을 현장 학습, ‘민간 홍보사절단’ 출범식

문화소사이어티 ☎ 02-2264-0088 culturesociety.or.kr

사람 중심의 공공디자인을 모집합니다

‘인간 존중의 공공디자인 문화’를 알리기 위한 2010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 작품을 공모한다. 수상 작품은 12월 열리는 ‘2010 공공디자인 엑스포’에 전시될 예정이다.

공모 부문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를 보여주는 공공디자인과 생활 속에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안전 디자인
참가 대상 | 단체 및 개인 가능. 단체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등을 모두 포함
접수 기간 | 11월 16일까지
응모 방법 |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서와 작품 설명서를 등록한 후 작품 패널, 데이터 CD를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접수처 | 서울 종로구 안국동 148 해영회관 9층 902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공공디자인 대상 사무국 담당자 앞
수상자 발표 | 12월 7일 홈페이지 게재 예정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02-398-7932 kcdf.kr/designaward

공감♥퍼즐

1	2		3	4	
	5	6			
		7			
					8
		9		10	

빈칸의 답을 주소, 연락처와 함께 11월 3일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이폰 〈정책투데이〉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가 로

1.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고침. “규제OO은 공정하고 편리하고 합리적인 대한민국을 위한 필수요건이다.”
3. 산등성이나 산비탈 같은 높은 곳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를 가리키는 말이죠. “OOO에 꼴찌 없는 공부방이 떴다.”
5. 일이나 현상 등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신기하고 묘함. 우주의 OO.
7.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직업. “정부의 국정 목표는 OOO 창출.”
9. 재롱을 잘 부리는 어린아이나 애완동물을 가리키는 말.

세 로

2.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하는 것이죠. OO도시.
4. 같은 뜻을 지니고 모여서 한패를 이룬 무리. “대학에 들어가면 사물놀이 OOO에 들어가기로 했다.”
6. 같은 현상이나 일이 한두 번이나 한둘이 아니고 많음. “그런 일은 OOOO하다.”
8. 서로 맺은 관계. 또는 사귀는 정분. “둘은 결혼을 약속한 OO다.”
10. 공중이나 물 위에 가볍게 떠 있는 모양. “둥근 보름달이 강물 위로 OO 떠올랐다.”

〈Weekly 공감〉 80호(10월 13일자) ‘공감 퍼즐’ 정답

가로 1 소통 4 시상 6 터전 8 승객 10 주사위
세로 2 통합시 3 트위터 5 상승 7 전화위복 9 객주

〈Weekly 공감〉 80호 ‘공감 퍼즐’ 당첨자

김혁제·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염봉준·부산 연제구 연산8동
임영석·경기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임영란·강원 태백시 황지동
한동욱·경기 과천시 문원동

스타 홍보대사 초대석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합시다"

몇 달 전 서울 지하철 충무로역에서 복제영화 디스크를 수백 장 늘어놓고 파는 아저씨를 봤습니다. 1만원에 세 장이라는데 심지어 당시 극장에서 상영 중이던 영화도 있었습니다. 그에게 다가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했는데도 그는 아무런 요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죄송합니다. 먹고살려니…"라고 답할 뿐이었죠.

우리 사회 밑바닥에는 이렇듯 '먹고살려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뭐라 하는 것은 매몰차다'라는 정서가 깔려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생존을 위해 때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시대를 거치면서 생겨난 정서입니다. 그런 분위기가 우리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의 이슈를 주도하는 중심국의 반열에 올라서 있습니다. 그 위상에 맞는 변화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돌이켜 보면 '먹고살기 위해서'라는 명분 아래 너무 많은 불법과 탈법이 용인돼왔습니다. 1980년대를 풍미한 가수 조용필 씨도 불법 음반이 하도 많이 팔려서 음반 판매량을 정확히 집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불법 음반은 한때 '길보드 차트'라는 부끄러운 이름으로 당당히 소개되기도 했었죠.

이러한 안이한 생각이 디지털시대로 접어들면서 불법 다운로드로 이어졌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인터넷에 있는 모든 것은 공짜다'라는 인식입니다. 이 때문에 아무 거리낌 없이 불법으로 파일을 내려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품 음반은 팔리지 않고 디지털 음원도 무료로 내려받는 것이 대세를 이루면서 실력 있는 가수들이 꿈을 접기 일쑤입니다. 소프트웨어 시장도 마찬가집니다. 컴퓨터를 사면 으레 불법으로 여러 프로그램들을 깔아줍니다.

일러스트 · 문지혜

스스로 인터넷 강국이라 외치고, 중국에서 온갖 '짝퉁'을 만든다고 손가락질하는 우리가 정작 남이 애써 만든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쓰는 데는 거리낌이 없다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품을 쓰는 일은 우리의 미래와도 직결된 사안입니다. 요즘에는 게임 같은 소프트웨어 개발에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젊은이가 많습니다. 그런 인재들을 보호하고 꿈을 펼칠 수 있게 도와주려면 불법 복제를 근절해야 합니다.

다행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과 보호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 당국과 소프트웨어 업계의 노력 그리고 국민의 인식 전환이 이뤄져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압니다. 정품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격만 높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 나아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의 먹고사는 문제도 해결해 줍니다.

취업으로 고민하는 조카, 자녀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간단합니다. 자신에게 꼭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정품으로 사면 됩니다.

글 · 남희석(소프트웨어저작권보호 홍보대사)

공감 마당

1.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
2. 지난주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

김민석 서울 구로구 고척1동

1. '다문화가정 출신 첫 프로축구 선수 강수일' 기사를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그의 이력에 대해 잘 몰라 그동안 외국 출신 용병 선수인 줄 알았는데 이번 기사를 통해 혼혈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려운 가정환경을 이겨낸 그가 다문화가정 어린이 축구단 'M키즈' 멘터로서 더 멋진 활동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2. 10월 22일부터 사흘간 2010 포뮬러원(F1) 코리아 그랑프리 대회가 열렸습니다. 알다시피 F1은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 대회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모터스포츠계의 발전을 이끌어 자동차 강국으로 거듭났으면 합니다.

3.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정부 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Q&A 코너가 마련됐으면 합니다.

이수미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 '정부·공공기관 제공 스마트폰 앱 인기' 기사를 보고 반가웠습니다. 몇 주 전 스마트폰을 구입했는데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지 고민이 많았거든요. 기사를 통해 정부에서 개발한 취업, 창업, 여행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2.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린 F1 대회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대회 유치로 생산·고용 유발효과가 2천7백여 억원이나 된다니 놀랍습니다. F1 경주장 인근에 자동차 관련 연구소가 들어서고 관광객이 많아지면 지속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3. 날씨 좋은 가을이라 지역별로 다양한 축제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가족들이 나들이할 만한 축제를 소개해주세요.

독 자 의 견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의견은 〈Weekly 공감〉 제작에 소중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아래의 설문에 의견을 적어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10월 27일(수)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의견이 게재된 분에게는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에 실린 기사 중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2. 이번 주 기획특집으로 다룬 '규제개혁으로 더 나은 대한민국'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을 적어주십시오.

NTS 국세청
www.nts.go.kr

함께 만들어요! 대한민국세미래 稅美來

국세와 관련된 모든 상담 126 하세요!

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에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세법상담에서 연말정산까지
국번없이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

상담시간

월~금 오전 9:00 ~ 오후 6:00
(탈세신고는 365일 24시간 가능)

시민사회와 'G20 소통' 손잡았다

G20 최초 '대화의 장' 마련… '민중행동'과도 토론회

서울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G20 셰르파와 시민단체 대표가 G20 정상회의 의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시민사회와의 대화' 행사를 개최했다. 이어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가 G20 관련 국내 시민단체 연합체인 '사람이 우선이다! G20 대응 민중행동'과도 토론회를 갖는 등 G20과 시민사회 간 소통과 협력의 자리가 마련되고 있다.

서울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정부 교섭대표 간 모임인 G20 셰르파(Sherpa) 회의가 10월 14, 15일 서울에서 열린 가운데 시민단체 대표들과의 대화의 장(場)이 G20 최초로 마련됐다.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는 11월 11, 12일 개최될 서울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린 사실상 마지막 정부 간 교섭모임인 이번 G20 셰르파 회의를 계기로 10월 15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 회의장에서 G20 셰르파와 시민단체 대표가 G20 의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시민사회와의 대화(Civil G20 Dialogue)'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20명의 G20 셰르파와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GCAP), 옥스팜, 소셜워치 등 70개 비정부기구(NGO)의 대표와 실무자 1백여 명이 참석했다.

70개 NGO 대표와 실무자 1백여 명 참석

'시민사회와의 대화'는 G20 차원에서 최초로 개최된 것으로, 서울 G20 정상회의 직전에 열릴 G20 비즈니스 서밋(11월 10, 11일)과 더불어 우리 정부 주도의 G20 프로세스에 민간의 참여와 협력을 확대해나가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날 행사는 이창용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기획조정단

'서울 G20 정상회의 성공기원 스타 서포터즈 발대식'이 10월 21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앞줄 왼쪽부터 걸그룹 2NE1 멤버들과 사공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장, 임권택 감독, 김중만 사진작가, 이상봉 디자이너, 양준혁 선수와 탤런트 지진희. 뒷줄 왼쪽부터 여민지, 모태범, 이상화 선수와 박보영, 김소은, 조여정, 한지민 등 탤런트, 에드워드 권 쉐프, 뮤지컬배우 남경주 등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장과 이성훈 GCAP 한국 실무준비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돼 약 1시간 30분간 비공개 회의로 진행됐으며, 프레임워크(국제 협력체계), 무역, 금융규제 및 국제금융기구 개혁, 개발 이슈, G20 거버넌스 등 G20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에 대해 NGO 측이 질문하고 셰르파들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NGO 측은 G20의 고용증진 약속 이행 노력을 비롯해 무역정책 추진, 개발 어젠다 논의, 식량안보 증진 및 유엔 등 다른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에 관심을 표시하고 G20 주요 의제들에 대한 NGO 측 입장을 정리해 권고안 형식으로 G20 셰르파들에게 전달했다.

G20 셰르파들은 G20 주요 의제에 대한 논의 동향과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고 향후 G20 프로세스에서 NGO들이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해줄 것과 G20 의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 제고를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협조를 당부했다.

사공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은 지난 10월 13일 '시민사회와의 대화' 참석차 방한한 베나비데스 GCAP 의장, 세이어 옥스팜 홍콩대표 등 15명의 각국 NGO 대표들을 별도로 맞이해 G20 주요 의제 논의 현황을 설명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G20 주요 의제에 대해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는 이어 10월 20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G20 관련 국내 시민단체 연합체인 '사람이 우선이다! G20 대응 민중행동(이하 '민중행동')'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 G20 정상회의 의제에 대한 국내 노동단체 등 시민사회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G20 정상회의의 그간 합의사항과 정부 이행 평가 ▲금융규제와 금융안전망 ▲빈곤과 개발 등 3가지 의제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G20 준비위원회는 민중행동이 10월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G20 대응 공동행동주간'을 선포하는 등 G20 정상회의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했지만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위한 노력은 계속해나가기로 했다.

G20 준비위원회는 "'시민사회와의 대화' 등은 G20 프로세스에 민간 의견을 수렴하고 협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시민사회와 협력해 서울 G20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그 효과를 공유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G20 준비위원회는 정상회의 준비단계에서 시민사회가 참여함으로써 최종 합의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확보하고 정당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G

글 · 박경아 기자

G20 경주 회의 참가자에게 영주 사과 전달

경주 G20 회의서 각국 입장 최종 조율

G20 회원국의 이름이 영문 이니셜로 새겨진 영주 사과.

10월 21~23일 신라의 천년 고도(古都) 경주의 힐튼호텔에서 열린 G20 경주 회의 참가자들에게 G20 기념 사과가 선물로 전달됐다.

이 사과는 경북 영주시 봉현면 유전리 홍은농장(대표 이창희)이 공급한 것으로, 지난 9월 주문을 받아 특별히 재배된 것이다. 사과 표면에 영문으로 참가국명을 새겨넣었으며 각국당 30킬로그램씩, 전체 6백 킬로그램이 G20 경주 회의 참가자들에게 전달됐다.

홍은농장은 2001년 저농약 친환경농산물 인증, 영주시 농업명인대상, 탑프루트 대통령상 등을 수상해 그동안 사과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온 농장이다. 전국 최대 사과 재배지(전국 사과 생산량의 11퍼센트)인 영주시의 3천여 농가가 생산하는 사과는 지역 특성상 일교차가 커서 다른 지역 사과보다 당도가 높고 색깔이 선명한 것으로 유명하다.

한편 G20 경주 회의는 10월 21일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회의를 시작으로 22, 23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가 열려 최근 세계경제에서 핫이슈가 되고 있는 환율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 불균형 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이해가 맞서고 있는 환율 문제가 심화될 경우 G20의 국제 공조 틀을 깨뜨리고 세계경제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보고 이번 경주 회의에서 각국 간 입장을 조율하고 타협을 촉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번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는 미국의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과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을 비롯해 세계 거시경제의 판도를 좌우하는 정책당국의 '올스타'들이 참석했다.

이 밖에도 유럽중앙은행의 장 클로드 트리셰, 중국의 저우샤오촨, 프랑스의 크리스티앙 누아예, 독일의 악셀 베버, 일본의 시라카와 마사아키 등 중앙은행 총재들이 참석했다.

또 거물급 재무장관으로 영국의 조지 오스본, 일본의 노다 요시코, 프랑스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중국의 셰쉬런, 유럽연합(EU)의 올리 일마리렌 경제통화집행위원 등이 총망라됐다.

국제기구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총재,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등이 방한했다.

조영철 기자

아이돌이 뭉쳤다!
G20 Let's go

인기 아이돌 가수 20명이 부른 서울 G20 정상회의의 캠페인 송 '렛츠 고(Let's Go)'가 10월 15일 공개됐다. 또 'Let's go G20 콘서트 2010 아시아송페스티벌'이 10월 23일 서울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열리는 등 서울 G20 정상회의의 개최를 2주가량 앞두고 축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G20 정상회의의 캠페인 송 제작과 Let's go G20 콘서트에 참여한 아이돌 그룹 '2AM', '포미닛', '카라'(왼쪽부터).

Y'all ready for this G20 in Seoul 2010
Just take my hand and fly 내 손 잡고 걸어가
너와 나 모두가 다 기다려왔던 시간이 눈앞에 Let's go!

네가 기쁠 때나 슬플 때 우린 항상 옆에 있을게
외롭다고 느낄 때도 우린 곁에 있을게
어려워 말고 두 손을 내밀어요
모두 모여 함께 두 손을 잡고 hey, let's go

누구라도 모두 같이 달려봐 세상 끝까지
항상 우리 하나 되어 지금부터 let's get started
Now we are one 모두 다 손을 잡고
다 같이 하나 되어 let's go let's go let's go 모두 다…

'2PM'의 준수와 '소녀시대'의 서현, '카라'의 박규리 등 이름만 나와도 팬들이 열광하는 인기 아이돌 가수 20명이 서울 G20 정상회의를 알리려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이 부른 서울 G20 정상회의의 캠페인 송 '렛츠 고(Let's go)'가 10월 15일 공개됐다. "Let's go! Let's go!"로 시작되는 이 캠페인 송은 한국어와 영어 두 가지 버전으로 제작됐다.

'그룹 오브 트웬티'에는 이들 외에도 창민(2AM), 재경(레인보우), 종현(샤이니), 성민(슈퍼주니어), 가희(애프터스쿨), 루나(f(x)), 송지은(씨크릿), 용준형(비스트), 허가윤(포미닛), 민(미쓰에이), 지오(엠블랙), 범키(투윈스), 지나, 손담비, 서인국, 아이유, 안나 등 국내 최정상급 아이돌 그룹과 소속사를 대표하는 가수 각 1명씩이 참여해 'G20'를 상징하는 의미를 더했다.

참여 가수 20명과 G20 의미 더해 '그룹 오브 트웬티' 결성

앨범 타이틀은 앨범 작업에 참여한 가수 20명의 숫자와 G20의 의미를 더해 '그룹 오브 트웬티'로 결정됐다.

작사, 작곡에는 신사동 호랭이(본명 이호양)와 상혁, 에디,

용준형 등 4명이 참여했으며 G20 정상회의 의장국이 된 한국의 젊은이들이 자긍심을 갖고 함께 세계를 향해 도전하자는 메시지를 담았다. 빠르고 경쾌한 리듬의 댄스곡으로, 자칫 어려울 수도 있는 G20 정상회의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특히 신나는 하우스 리듬에 반복적인 멜로디가 쉽게 따라 부를 수 있게 하고 있다.

지난 9월 2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스튜디오에서 20명이 모여 합창을 부르는 장면은 뮤직비디오로도 제작돼 이날 함께 공개됐다. 이번 캠페인 송 제작에 가수와 작곡가들은 노개런티로 참여했으며, 향후 '렛츠 고' 음반 발매에 따른 수익금은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렛츠 고'는 10월 23일 서울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열린 'Let's go G20 콘서트, 2010 아시아송페스티벌' 피날레 무대에서도 선보였다. 이날 피날레 무대는 캠페인 송에 참여한 대다수의 스타들을 포함한 전 출연진이 '렛츠 고'를 함께 부르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G20 캠페인 송 이어 'Let's go G20 콘서트'도 열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아시아송페스티벌은 아시아 유일의 자선 국제음악회이자 최고의 음악 축제로 꼽히고 있으며, 올해에는 서울 G20 정상회의를 기념하는 'Let's go G20 콘서트'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아시아 6개국 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여 희망의 멜로디를 전 세계에 전했다.

이날 공연에는 '렛츠 고' 제작에 참여한 아이돌 가수 이외에도 아시아 최고 스타로 꼽히는 보아와 월드스타로 자리매김한 비, '라이브의 황제' 이승철 등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들이 참여했으며 대만의 정위엔창, 중국의 제인장, 말레이시아의 광량 등도 개성 있는 무대를 보여주었다.

특히 서울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올해 아시아송페스티벌은 국내 주요 방송사는 물론 일본 NHK, 니혼TV를 비롯해 중국 CCTV, 홍콩 TVB, 대만 AZIO와 GTV, 태국 CH9 등 다수의 매체가 중계해 취재 규모 면에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아시아송페스티벌은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과 서울시, 유니세프가 공동 주최했으며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후원했다.

G20 준비위원회는 "앞으로 G20 관련 행사에서 캠페인 송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

글·박경아 기자

청와대 홈페이지에 '렛츠 고' 뮤직비디오

전 직원 휴대전화 통화 연결음도 '렛츠 고'

서울 G20 정상회의의 홍보를 위해 청와대도 본격적으로 나섰다. 청와대는 10월 19일 홈페이지에 서울 G20 정상회의 캠페인 송 '렛츠 고' 뮤직비디오를 올리고 10월 20일부터 전 직원의 휴대전화 통화 연결음도 '렛츠 고'로 바꾸기로 했다.

청와대 공식 트위터 계정(twitter.com/BluehouseKorea)은 10월 12일부터 매일 오전 11시 11분 G20 관련 퀴즈를 내고 정답자 5명에게 박지성 선수의 사인이 든 미니 축구공 등을 상품으로 주는 행사도 열고 있다. G20 정상회의 개최 날짜, 'G20'에서 G의 의미 등을 묻는 질문들이 대부분이다. 이 퀴즈는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 전날인 11월 10일까지 계속된다.

한편 청와대는 우리 국민의 90퍼센트는 서울 G20 정상회의가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10월 17일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G20 관련 국민 의식 조사'에 따르면 서울 G20 정상회의가 국가 위상에 끼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8.1퍼센트가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답변했다.

또 G20 정상회의 개최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84.1퍼센트가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긍정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82.4퍼센트로 나타났다.

김희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가 위상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은 연령대나 지지 정당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서울 G20 정상회의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해탈'의 다리 건너 相生의 지혜 얻다

실상사, 사찰·지역민 공동체 삶 모색하는 템플스테이 유명

천년고찰 실상사로 가다 보면 전북 남원시 산내면 입석리를 지날 즈음 만수천을 가로지른 '해탈교(解脫橋)'를 만나게 된다. 속세를 뒤로하고 다리를 건너 불심의 세계로 넘어가면 거창한 산문(山門)이 아니라 소박한 나무문이 이곳이 실상사임을 알려준다. 속세와 불세의 경계는 이리도 사소하고 이리도 가깝다.

진정 생명의 소중함, 자연과 조화로운 삶, 생명을 살리는 삶을 배우고 갑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해본 것들이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마도 단 한 번… 스님이 운전해주신 차를 타본 것 같습니다. 이제는… 미련하게 알고 있던 것들이 하나둘씩 꽃을 피웁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또한 서로 준비되지 않은 부족한 만남이었지만, 그 만남 안에서의 감동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도 저희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합니다."

인터넷으로도 불심(佛心)이 흐르는 요즘, 전북 남원시 산내면 입석리의 천년고찰 실상사 홈페이지에 오른 템플스테이 참여 후기 중 유난히 눈길을 끄는 것이 한신대 신학대학원생들이 보낸 편지다.

지난해 10월 고즈넉한 가을 정취에 심상(心想)이 깊어지는 실상사 템플스테이에 참여했던 한신대의 '예비 목회자들'이 실상사 스님들에게 보낸 편지들은 서로 다른 종교적 이념을 뛰어넘은 따뜻한 교감이 대립과 반목으로 점철된 우리네 일상을 부끄럽게 만든다.

신라 흥덕왕(828년) 때 개창(開創)한 최초의 선종(禪宗) 가람인 실상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소속의 전통 사찰. 1990년 창립돼 불교 개혁운동에 앞장서온 승가 결사단체인 '선우도량'의 중심 사찰인 이곳은 사찰을 중심으로 주변 마을과 공동체를 이뤘던 과거의 아름다운 전통을 부활시켜 '불교적 대안'을 찾는 것은 물론 공동체의식이 희미해진 현대 사회가 지향할 '사회적 대안'을 찾는 곳으로 유명하다.

대안·귀농학교와 지역주민 위한 마을교육 프로그램 운영

귀농학교 설립(1998년), 친환경 농법의 실상사 농장 운영(1999년 시작), 불교계 유일의 대안학교인 실상사 작은학교 설립(2003년) 등은 불교적 대안, 사회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상사가 시도해온 일들이다.

사찰과 지역사회가 어우러지는 우리 전통 불교의 모습을 되살리고 있는 실상사. 1천 년 이상 이곳 보광전 앞을 지키고 있는 쌍둥이 삼층석탑.

▲ 나무로 된 소박한 실상사 산문. ▶ 가을을 맞은 실상사 경내 연못 주변은 마치 고궁의 안뜰 같다.

이곳에서 진행하는 템플스테이 역시 예불과 발우공양 등 경내 활동 중심의 여타 사찰 템플스테이와 달리 대안학교, 귀농학교와 지역주민을 위한 마을교육 등을 프로그램에 넣어 사찰과 주변 마을의 공동체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실상사의 신선한 시도는 조용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실상사 이병희 종무실장은 "실상사 템플스테이는 여름과 겨울 수련회, 1박2일 또는 3박4일, 5박6일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로 연중 진행되고 있다"며 "지난해 실상사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인원은 4천여 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실상사는 '새로운 시도'만으로 유명한 것은 아니다. 실상사 천왕문을 지나 경내에 들어서면 한가운데에 자리한 연못의 가을 정취가 마치 한적한 고궁 정원 같다.

경내 마당 가운데에는 똑같은 모양의 삼층석탑(보물 제37호) 두 개가 나란히 서 있다. 높이 5.4미터의 전형적인 통일신라시대 석탑으로, 실상사 창건 당시 함께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실상사 해우소, 생태계의 선순환 상징

쌍둥이 삼층석탑 가운데 보광전 바로 앞에는 보물 제35호인 석등이 있다. 이 석등 역시 통일신라시대에 만든 것이다. 이 밖에도 수철화상능가보월탑(보물 제33호), 수철화상능가보월탑비(보물 제34호), 부도(보물 제36호), 철제여래좌상(보물 제41호) 등 보물이 즐비하고 실상사 부속 암자인 백장암에는 삼층석탑(국보 제10호), 석등(보물 제40호), 청동입사향로(보물 제420호) 등이 볼 만하다.

뜻밖에 유명한 곳이 실상사 해우소다. 실상사 내 승가대학인 화엄학림 앞에 오래된 전통적인 해우소가 있지만 그곳은 현재 창고로 쓰이고 약 10년 전 나무로 지은 '생태화장실'이 실상사가 추구하는 '생태계 선순환'의 상징이 되고 있다. G

글 · 박경아 기자

실상사 ☎ 063-636-3031 www.silsang.net

실상사 도법스님

생태계 순환처럼 '세상사 선순환' 이뤄지길

동아DB

"밖에서 보는 이는 들판을 보지만 안에서 보는 이는 산을 봅니다."

1995년부터 8년간 실상사 주지를 역임한 뒤 이곳을 중심으로 생명·평화운동을 펼쳐온 도법스님은 "실상사를 '들판사찰'로 보는 이도 있지만, 실상사는 '연화부수(蓮花浮水)'형 사찰"이라며 보는 눈의 '상대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실상사를 빙 둘러싼 높이 1천 미터 안팎의 산자락이 내려오며 마을-시내-들판-실상사가 이어지는 모습이 마치 물 위에 떠있는 연꽃 같다는 말이다.

실상사를 중심으로 인근 산내면 일대에서 사찰과 지역공동체운동을 펼치는 데 앞장서온 도법스님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실상사 해우소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과거에 똥은 생명을 가꾸는 거름이었으나 지금의 똥은 생명을 위협하는 쓰레기가 되고 있어요."

단절된 생태계 순환 질서를 회복하고자 하는 취지로 만든 곳이 이곳 해우소다. 과거 해우소와 다른 점도 있다. 발효가 잘 되도록 대소변, 화장지를 분리하고 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장애인용 변기도 따로 마련돼 있다. 여기서 만들어진 거름은 실상사 농장에서 사용된다. 자연스레 한곳에서 '선순환'이 이뤄지는 것이다.

도법스님은 지난 6월 구성된 조계종 화쟁위원장을 맡아 '세상사의 선순환'에도 나서고 있다. 도법스님은 10월 18일 '사회통합을 위한 4대강 사업 국민적 논의기구' 구성을 정부, 여야, 시민단체 등에 제안했다. 한시적으로 운영될 이 기구는 불교와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등 4대강살리기 사업에 관심을 표명해온 4대 종단이 중재자 역할을 맡게 된다. 도법스님은 다른 종단으로부터도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있다고 전했다.

"4대강 사업에 찬성이나 반대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합의도출에 방점(傍點)이 있습니다. 국민과 사회가 합의를 이뤄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 생산적 방향으로 가자는 것이죠. 한국 불교의 전통으로 내려온 원효대사의 '화쟁(和諍)'의 지향점도 그렇습니다. 갈등과 대립, 투쟁을 끝내고 대화와 공존, 화합으로 가야 합니다."

중앙선데이

▲ 천성산 밀밭늪의 끈끈이주걱. 늪처럼 물기가 많은 곳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 풀이다.
▶ 천성산 밀밭늪의 가재. 물 없이 살 수 없는 가재가 있다는 것은 항상 물이 존재한다는 의미이고, 양서류인 도롱뇽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란 뜻이다.

습지 말라 도롱뇽 죽는다던 천성산에 가보니…

"웅덩이마다 잘 살고 있습니다"

11월 1일 개통 예정인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원효터널 바로 위에 있는 밀밭늪엔 달라진 게 없었다. 천성산 내원사 지율스님과 환경단체가 터널공사를 하면 늪이 말라 생태계가 파괴된다며 공사 금지 소송을 냈던 곳이다. 하지만 가재와 도롱뇽처럼 물 없이는 살지 못하는 동물이 여전히 번식하고 있었다.

검은색을 띤 천성산(해발 9백22미터) 밀밭늪 바닥은 물컹거렸다. 해발 7백 미터 높이에 있지만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흙에선 물이 배어나왔다.

10월 8일 찾은 밀밭늪 곳곳에는 억새가 자라 있었다. 허리를 숙여가며 억새 사이의 습지 구석구석을 살폈다. 물이 5센티 정도 깊이로 고인 곳에서 손톱보다 작은 주걱 모양의 꽃 같은 것이 보였다. 동행한 생태전문가 강상준(70) 충북대 명예교수가 습지에서만 자라는 '끈끈이주걱'이라고 알려줬다. 습지식물인 '삿갓사초', 습지와 건조한 땅의 중간단계에서 사는 식물인 '진퍼리새' 등이 눈에 들어왔다.

밀밭늪은 11월 1일 개통 예정인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원효터널 바로 위쪽에 있다. 원효터널은 천성산 내원사 지율스님과 환경단체가 터널공사를 하면 위쪽 늪이 말라 생태계가 파괴된다며 도롱뇽을 원고로 공사착공 금지 소송을 냈던 곳이다. 이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사는 6개월간 중단됐다.

강 교수는 "만약 물이 없으면 끈끈이주걱 같은 식물은 절대 살 수가 없다. 습지가 유지되고 있다는 증거"라며 "2004년이나 2008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2004년 가을부터 2008년 가을까지 11차례 천성산의 밀밭늪과 법수원 계곡을 찾았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의뢰를 받아 경부고속철도 대구~부산 구간 공사를 위해 천성산에 터널을 뚫을 경우 천성산 습지에 어떤 환경 변화가 생기는지 조사하는 팀의 총책임자였다.

강 교수가 손에 검은 흙을 한 움큼 쥐고 비비면서 "이건 흙이 아니라 '이탄층'이다. 이탄층이란 식물이 완전히 썩지 않은 상태로 쌓인 건데 유기물이 만져지는 이곳은 모두 이탄층으로 돼 있다. 습지이기 때문이다. 습지환경이 잘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밀밭늪에 억새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이곳이 점점 건조해지고 있다는 증거다. 건조화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다. 처음 여기 왔던 2004년에도 진행 중이었다"며 건조한 땅에서 자라는 억새가 밀밭늪에 많은 이유를 설명했다.

"끈끈이주걱 있다는 건 습지가 유지되고 있는 증거"

졸졸졸 소리를 내며 물이 흐르는 도랑이 나타났다. 그곳에서 가재와 개구리를 볼 수 있었다. 환경조사에 양서·파충류 책임자로 참가한 한국양서·파충류생태연구소 심재한(49) 소장에게 현장에서 찍은 가재 사진을 보여줬다.

심 소장은 "이 가재는 1, 2년 된 가재다. 이런 가재가 있다는 것은 여기에 항상 물이 존재한다는 의미다. 가재가 번식하고 있는 것이다. 가재는 물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다"며 "매년

중앙선데이

경부고속철도 공사를 위해 천성산에 터널을 뚫을 경우 어떤 환경 변화가 생기는지 조사하는 팀의 총책임자였던 강상준 충북대 명예교수는 "천성산 밀밭늪은 습지환경이 잘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2004~2008년) 조사하러 갈 때마다 도롱뇽을 발견했다. 봄에는 도롱뇽 알도 볼 수 있었다. 지금 정도면 산은 겨울이라 도롱뇽은 벌써 겨울잠을 자러 들어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곤충이나 양서·파충류는 진동에 아주 민감해서 11월 KTX 개통 이후 다시 확인해봐야 한다"며 "건설 시공업체들을 보면 그래도 공사 전이나 도중에는 생태조사를 진행하는데 일단 공사가 끝나면 쉬쉬하는 경우가 많다. 시공사 입장에선 공사 후에 생태조사를 했다가 뭐 하나라도 잘못 나오면 문제가 생길까봐 꺼리는 건데 이건 끊임없이 자연을 개발하는 인간이 자연에 대해 가져야 하는 의무다"라고 덧붙였다.

밀밭늪에서 3.1킬로미터 떨어진 화엄늪, 이곳 역시 터널 공사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했다. 2006년부터 화엄늪을 관리해온 이용화(58) 씨는 "4년간 매일 이곳에 오다시피 하는데 달라진 건 저기 보이는 나무가 자란 것뿐이다. 올봄에도 웅덩이마다 도롱뇽이랑 알들 천지였다"고 말했다.

산기슭 마을인 주남동 주민 이정원(71) 씨는 "우리 동네는 천성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식수와 생활용수로 사용하는데 물이 안 나오면 주민들이 벌써 난리를 쳤을 것"이라며 "그래도 돌을 뚫었는데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라고 했다.

천성산 내원사 성불암에서 생활하고 있는 정민스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했다. "재작년부터 겨울만 되면 물이 말라버려요. 여름에는 잘 나오는데… 올겨울도 걱정이네요."

30여 년째 성불암에서 생활하고 있는 스님은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 식수와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다. 그는 지난 겨울 물이 나오지 않아 청소는 마른걸레로 하고 빨래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한 시간 거리에 있는 산 너머 다른 암자에 가서 해결했다고 말했다.

"화엄늪도 터널공사 이전과 달라진 게 없다"

지율스님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그가 머물고 있다는 경북 상주시로 갔다. 지율스님은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2003년부터 2005년 사이 네 차례에 걸쳐 2백41일간 단식을 했다. 집은 비어 있었지만 동네 주민의 도움으로 서울에 있다는 그와 통화를 했다.

"천성산에 다녀왔는데 늪에 물이 많고 변화가 없다"고 하자 그는 "천성산 문제는 단발적으로 얘기하기 힘들다. 터널이 개통되면 제가 할 일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율스님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하지만 그는 "내가 입을 열면 사람들이 일을 안 보고 나를 본다. 천성산 때도 그랬다. 나만 보고 천성산은 안 봤다. 4대강도 나를 보고 4대강을 안 보니까. 그래서 인터뷰 안 한다"며 거절했다. G

글 · 임현욱(중앙선데이 기자)

인구주택총조사,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종이 사용량·비용 줄이는 인터넷조사로 '그린 센서스' 지향

전국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인구, 가구, 주택의 규모와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2010 인구주택총조사가 10월 22일 시작돼 11월 15일까지 실시된다. 이번 조사는 언제 어디서든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인터넷조사(10월 22~31일)를 대폭 늘려 응답자의 편의를 높이고 종이 사용량과 비용을 줄이는 '그린 센서스'를 지향하고 있다.

동아DB

인터넷조사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하는 방문면접조사에 응하면 된다.

올해는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는 해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일정한 주기로 전국의 모든 사람과 거처를 동시 개별적으로 빠짐없이 조사해 인구, 가구, 주택의 규모와 분포는 물론 경제·사회적 특성 등을 파악하는 국가 기본 통계조사다.

여기에서 나온 자료는 국가 주요 정책 수립과 각종 학술 연구 등에 활용된다. 미국은 10년, 캐나다는 5년 주기로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일제강점기인 1925년 국세조사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1970년 이후 5년마다 하고 있다.

통계청은 10월 22일부터 인구주택총조사 인터넷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인터넷조사는 10월 31일까지 열흘 동안 계속된다. 이는 11월 1일부터 방문면접조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인터넷조사를 통해 모든 국민이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인구주택총조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번 조사의 가장 큰 특징 또한 인터넷조사의 비중을 늘려 응답자의 편의 증진과 비용 절감 효과를 꾀한 점이다.

이인실 통계청장은 "최근 5년 동안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가 크게 늘어 낮에 집을 비우는 가구가 많고, 시민들의 사생활 보호 의식이 강화되는 등 조사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이번에는 어디서든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인터넷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며 "2005년 전체 가구 수의 0.9퍼센트(14만 가구)에 불과하던 인터넷조사 참여율을 올해는 30퍼센트(약 5백60만 가구)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인터넷조사 참여율이 목표치인 30퍼센트를 달성할 경우 약 1백64억원의 막대한 조사비용 절감효과를 가져와 고효율, 저비용의 경제적인 센서스를 치를 수 있다. 아울러 종이 조사표 약 5백60만 장을 절약해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걸맞은 '그린 센서스'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사에는 자전거 등 교통수단 보유 및 이용 현황을 묻는 항목도 포함돼 있다. 그 결과는 녹색성장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쓰일 계획이다.

외국인 조사표·안내문 9개 언어로 제작해 언어 장벽 낮춰

인구주택총조사를 위한 제작용품도 친환경 물품으로 마련한다. 조사 지침서, 조사 사례집 등을 재생용지로 제작하고 가방이나 일부 문구용품 등은 이번 조사 이후에도 재활용이 가능하게 한 것.

재생용지로 제작되는 각종 지침서류는 9종 1백 톤 분량이며, 조사표에는 자료 처리를 위해 일반용지를 사용했으나 재생이 가능하도록 코팅 처리는 하지 않았다.

아파트 주택 항목 5개(거처의 종류, 주거용 연면적, 건축용도, 총 방수, 주거시설 수)를 행정자료로 대체하는 등 응답자의 부담을 줄이려 애쓴 점도 눈에 띈다.

이번 조사에는 국적 및 입국연월 등 다문화가구와 외국인에 대한 정책 수요를 반영한 항목도 새롭게 추가됐다. 정부는 외국인 조사표와 안내문을 9개 언어로 제작해 언어 장벽을 낮췄다. 또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로 블로거 기자단을 구성해 각 나라 언어로 이번 조사의 시행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통계청은 난항이 예상되는 외국인 조사에 대해서는 결혼이민자를 조사관리자로 채용하고 9개국 언어로 된 조사표를 제공해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 조사 기간 중에는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지 않도록 법무부와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콜센터 1345)는 외국인 서비스를 통해 인구주택총조사 시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터넷조사 참여 방법은 2010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각 가구에 배부된 참여번호와 기본정보, 조사표를 차례로 입력하면 된다.

조영철 기자

2010 인구주택총조사 인터넷조사에 참여하려면 홈페이지를 방문해 각 가구에 배부된 참여번호 등을 입력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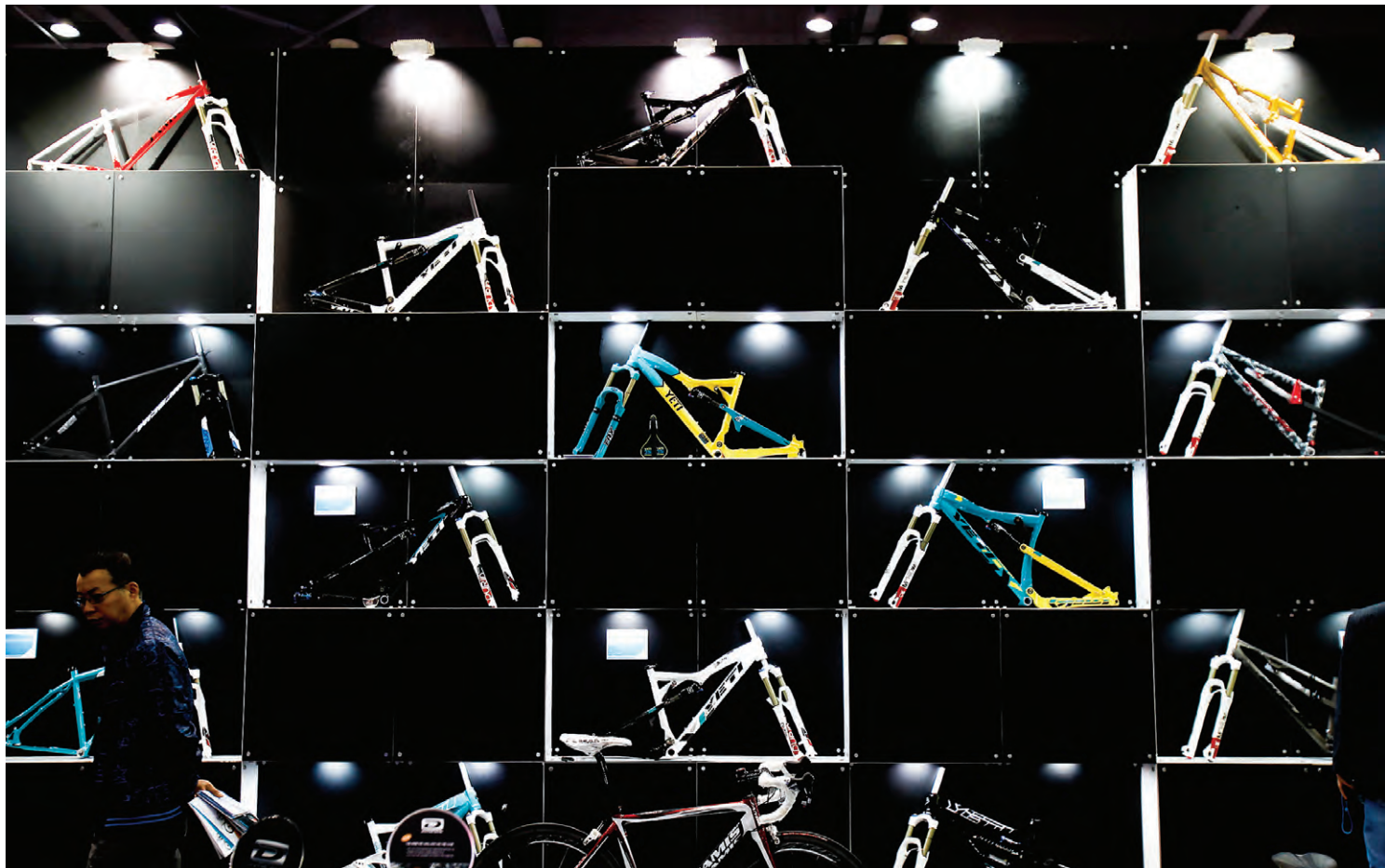
참여번호는 전국의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부여한 고유번호로 영문과 숫자 9자리로 이뤄져 있으며 사전 준비조사 기간(10월 19~21일) 동안 조사원들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 배부한 조사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여번호를 분실했더라도 걱정할 것은 없다. 인터넷조사 홈페이지에서 집 주소를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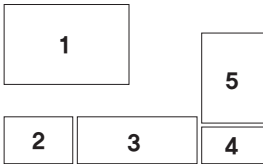
인터넷 참여한 초중고 학생에게 봉사활동 확인서도 발급

인터넷조사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경품 이벤트도 펼쳐진다. 통계청은 인터넷조사에 참여한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열흘 동안 매일 5백명에게 5만원 상품권을 추첨을 통해 지급하는 한편, 인터넷으로 참여한 모든 초중고 학생에게는 봉사활동 2시간을 인정하는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한다.

인터넷조사 기간에 조사에 참여하지 못한 가구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찾아가 실시하는 방문면접조사에 응하면 된다. 인터넷조사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나 민원 접수는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콜센터(오전 8시~밤 11시)로 문의하면 된다. G

글 · 김지영 기자

2010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 www.census.go.kr, 콜센터 ☎ 080-200-2010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콜센터 ☎ 1345

세계자전거박람회 2010

자전거의 무한 변신

1 '세계자전거박람회-2010 경기도'가 10월 2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렸다. 자전거 회사 이엑스에서 기능성 자전거로 만든 조형물.

2 세계 최초의 체인 없는 전기자전거. 일반 가정용 전원으로 3시간 충전하면 페달을 밟지 않고도 전기스쿠터처럼 40킬로미터 이상 달릴 수 있다.

3 이번 박람회에 전시된 자전거들은 대부분 내년 상반기 출시를 앞두고 있다. 자전거 기능을 살펴보는 관람객들.

4 한 관람객이 자전거 부품을 유심히 살피고 있다.

5 국내 생산품 전시관 앞에는 경기 군포시의 자전거도로 현황을 보여주는 모형이 자리하고 있다.

세계 최초의 체인 없는 전기자전거, 승용차 가격과 맞먹는 나무자전거, 절단기로도 잘리지 않는 도난방지장치 등 다양한 안전용품, 자전거용 스피커와 내비게이션…. 무한 변신을 거듭해온 자전거와 관련된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자전거 박람회인 '세계자전거박람회-2010 경기도'가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렸다.

자전거산업을 육성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박람회에는 국내외 유명 자전거 업체 1백여 곳이 참가해 총 4백40개의 부스에서 완성자전거, 전기자전거, 자전거 부품, 의류 및 장비, 액세서리 등 자전거와 관련된 모든 제품이 전시됐다. 또한 자전거 패션쇼, 자전거 트래블토크, 자전거 창업 세미나, 자전거 사진 콘테스트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열려 자전거 마니아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10대 자전거 거점도시인 강원 강릉시, 경북 구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해 자전거 인프라 구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알리기도 했다. 한편 세계자전거박람회와 같은 날 시작한 '제2회 대한민국 자전거축전'은 10월 30일까지 전국 16개 시도에서 진행된다. G

글 · 김민지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세계자전거박람회-2010 경기도 ☎ 031-810-8044 worldbikeshow.com

렌즈에 스며든 생명의 소중함

생태관광 사진공모전… 43점 수상

최우수상 | 김성환 〈안개 속 우포늪〉 새벽녘, 물안개 피어오르는 우포늪의 고요함을 표현했다. (경남 창녕군 우포늪)

최우수상 | 한종현 〈유부도의 겨울 풍경〉 검은머리물떼새의 동북아 최대 월동지인 유부도의 겨울 풍경. (충남 서천군 유부도)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자연과 그곳에서 살아가는 야생 동식물의 모습은 어떨까.

생명의 소중함과 여행의 즐거움을 알리려는 취지로 열린 '한국 생태관광 사진공모전'의 수상작이 10월 13일 공개됐다.

한국생태관광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이번 공모전에는 총 1천7백49점의 사진이 출품됐다. 그중 '생태자원을 발굴하고 생태관광의 즐거움을 전한다'는 공모전의 취지와 작가의 창의력에 심사 기준을 맞춰 대상과 최우수상을 비롯한 43점의 수상작이 결정됐다.

대상을 차지한 〈고라니의 외출〉은 서설(瑞雪)이 내리는 들판에 서 있는 고라니의 눈빛이 인상적인 작품이다.

최우수상을 받은 〈유부도의 겨울 풍경〉은 이 땅에서 사라져가는 멸종위기종을 작품을 통해 지켜보려는 작가의 노력이 높은 점수를 받았고, 〈안개 속 우포늪〉은 마치 '빛으로 써내려간 한 편의 서정시 같다'는 평가를 받았다.

심사위원들은 "출품작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았고 표현 면에서도 참신한 작품이 많았던 반면 특정 지역이나 장소에서 촬영한 작품이 많았다는 점이 아쉬웠다"고 심사평을 밝혔다. 수상작은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감상할 수 있다. G

글 · 이윤진 기자

한국 생태관광 사진공모전
contest.ecotourism.or.kr

대상 | 김득성 〈고라니의 외출〉 아웃포커스의 신비감과 야생동물의 눈높이에 맞춘 앵글이 만들어낸 구도가 인상적이다.(경기 안산시 시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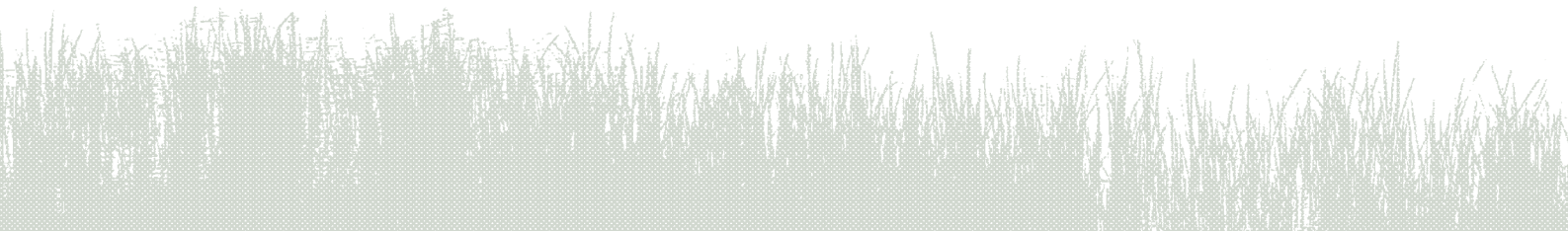
우수상 | 김덕수 〈자식 사랑〉

새끼들에게 물고기를 나눠주는 물총새.
(전남 담양군 담양생태천)

우수상 | 인경호 〈가창오리 군무〉

가창오리의 군무가 장관을 이룬다.
(전북 고창군 동림저수지)

장려상 | 강남구 〈자연의 신비〉

이른 아침, 모후산에서 만난 노란망태버섯.
(전남 화순군 모후산)

장려상 | 유형전 〈우포의 여름〉 우포늪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서정적으로 포착했다.(경남 창녕군 우포늪)

우수상 | 김희곤 〈순천만 황금물결〉 노을을 받아 황금빛으로 물든 순천만.
(전남 순천시 순천만)

장려상 | 김미경 〈아름다운 제주도〉 제주도 푸른 바다를 사이에 두고 바라본 일출봉.(제주도 제주시 일출봉)

우수상 | 표도연 〈한강변에서 살아가는 산호랑나비〉 한강변에서 만난 산호랑나비 애벌레.(서울 한강공원 난지지구)

우수상 | 도성만 〈꼬막작업〉 꼬막 채취에 나선 어민들의 모습.(전남 순천시 순천만)

입선 | 김규현 〈길에서 만난 가을〉 가을 소백산을 오르는 중에 만난 민가 풍경.(경북 영주시)

입선 | 정태섭 〈먹이 사슬〉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피할 수 없는 먹이사슬의 운명.
(대구 동구 불로동)

G20 SEOUL SUMMIT 2010 위기를 넘어 함께 성장하는 서울 G20 정상회의

4대강살리기를 위한 당신의 BIG IDEA를 낚아라!!

4대강살리기
대학생 영상광고 공모전

응모자격 전국 2년제 이상 대학생 및 대학원생 (휴학생포함)
※ 개인 또는 팀(최대 4명)으로 응모가능

응모과제 4대강살리기 영상광고 스토리보드 제작 (극장광고용)
※ A3 당사 소정양식 사용, 10컷 이내, 컬러
※ 상하좌우 여백 2cm씩 적용하여 검은색 하드보드지에 부착하여 제출

응모방법 ① 온라인 신청 접수 및 접수증 출력 (홈페이지 : www.kwater.or.kr)
② 출력한 접수증을 작품 인쇄본 뒷면의 좌측 상단에 부착
③ 작품 제출 (우편 접수 및 방문 접수)

응모기간 2010년 10월 18일 (월) ~ 11월 8일 (월) 15:00 까지

제출장소 (306-711)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 560(연축동 산6-2) K-water 홍보실
※ 우편 제출시 마감일 도착분 까지만 유효함

심사방법 기획 · 카피 등 아이디어의 참신성 및 작품완성도, 광고효과 등을 종합 평가

수상작 발표 2010년 11월 12일 (금) 10:00 K-water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지

시상식 수상작 발표시 개별통보 예정

대상(1편)	상금 300만원	국토해양부장관상 수여
금상(1편)	상금 200만원	K-water 사장상 수여
은상(1편)	상금 100만원	K-water 사장상 수여
동상(3편)	상금 50만원	K-water 사장상 수여
장려상(10편)	상금 10만원	

기타 유의사항
◎ 작성 양식은 당사 홈페이지(www.kwater.or.kr)에서 다운로드
(작품 규격 및 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 접수증이 부착되지 않은 작품은 제출 불가
◎ 시리즈 광고 등 개인(팀)별 다수 작품 응모가 가능하나, 중복 수상 불가
◎ 작품 내 출품자 성명 및 소속 등의 개인정보를 노출한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
◎ 우편 제출시 작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포장
◎ 모방/표절작품은 수상 이후라도 입상 취소 및 상금 회수
◎ 입상자는 재학증명서 등 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응모자격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입상 취소 및 상금 회수
◎ 응모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수상작의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함
◎ 문 의 : ☎ 02-568-3641, 042-629-2226

더욱 공정하고 편리하고 합리적인 것

고맙다! 규제개혁

'규제개혁' 하면 뭔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막힌 길을 뚫고
굽은 마디를 펴며 묶인 맥을 풀어주어 능력껏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규제개혁입니다. 기업의 숨통을 틔워 일자리 만들기와 투자를 활성화하고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매끄럽게 만들며 국민의 일상생활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해주는 정부의 보이지 않는 손길, 그것이 규제개혁입니다.
국민 모두 더욱 공정하고 편리하며
합리적으로 느끼는 그날까지,
규제개혁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일러스트 · 황중환

규제개혁, 경쟁력 갖춘 선진화의 길

찾아가는 지역·업종 간담회 통해 규제개혁 과제 파악 및 개선

한 나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가 규제개혁이다. 일자리 창출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해온 정부의 규제개혁은 아직 완결되지 않은 과제다. 국민 모두가 내 일로 체감할 때까지, 기업들이 미래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규제개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한국산업규격(KS)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동일 검사를 중복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 검사받는 비용이 2백만~3백만원인데, 사업주에게 주는 시간적, 금전적 부담이 상당합니다."

_ 전기제조업체 동신전기

"2010년 7월부터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게 되면 임대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갱신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에 전자신고로 해결하던 것보다 오히려 더 불편해졌어요."

_ 서울 경동시장 상인들

10월 21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5동 서울상공회의소 동대문구상공회 사무실에서 중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민관 합동 규제개혁추진단(공동단장 이동근, 유희상)이 개최한 것으로 유완상 동대문구상공회장, 신창식 동대문구건축자재연합회장, 윤태순 정우양행 대표이사 등 20여 명의 동대문 지역 상공인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밖에도 일반 근로자(하루 8시간 근무 기준)보다 장시간 일하는 초중학교 경비원들에 대한 임금산정 현실화와 제조업체들의 납품자금 결제방법 개선 등 여러 규제개혁 과제가 제시됐다.

서울상공회의소 동대문구상공회 양창업 사무차장은 "그동안 중소상공인 경영애로해소위원회 주최로 분기별로 이러한 행사를 진행해왔는데 오늘은 규제개혁추진단이 직접 우리 지역을 찾아 지역 상공인들의 어려운 점을 함께 논의했다"며 "지

정부가 추진해온 광범위한 규제개혁은 기업들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관광, 보건, 의료 등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개선 과제를 남기고 있다. 10월 1일 한국방문의 해를 기념해 서울 종로구 세종로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외국인 무료 광역셔틀버스 운행식.

역 상공회 차원에서 해결되지 않는 현안들을 직접 건의하는 자리를 갖는 것은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해 2008년 4월 1일 출범한 규제개혁추진단은 이처럼 ‘찾아가는’ 지역 간담회와 업종 간담회(총 2백39회·이하 지난 6월 기준)를 통해 기업 현장의 규제개혁 과제들을 파악해왔다. 출범 이후 1천8백43건의 과제를 발굴해 부처 간 협의를 거쳤고 1천1백19건을 개선하고 해결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부터 일자리 창출과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정부는 지금까지 ▲규제개혁 과제의 발굴과 정비 ▲신설·강화 규제 심사 ▲전략과제 개선 등 3개 영역에 걸쳐 규제개혁을 추진해왔다.

규제개혁추진단 출범으로 2,775건 규제 정비

‘규제개혁 과제의 발굴과 정비’ 핵심 기관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다. 정부 출범과 동시에 핵심·덩어리 규제를 정비하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신설돼 지금까지 1천3백33건의 규제개혁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이 중 7백73건을 해결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또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을 출범시켜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왔으며, 각 부처청을 통해서도 3천5백99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2천7백75건을 정비했다.

‘신설·강화 규제 심사’를 담당한 곳은 규제개혁위원회로, 지금까지 신설·강화 규제 2천1백25건을 심사해 2백23건을 개선했고 63건에 대해서는 철회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수도권 산업단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한시 면제’와 같이 여러 부처가 관련된 전략과제는 주제별로 개선이 추진돼 ▲한시적 규제유예(2백80건) ▲신성장동력 분야 규제개혁(1백75건) ▲농산어촌 현장애로 개선(1백건) 등이 이뤄져왔다.

이러한 규제개혁은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 신성장동력 창출, 중소기업과 서민 지원, 국민생활 편의 증진, 법질서 확립과 국격 향상 같은 ‘순기능’을 가져와 우리나라는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2010’ 평가 결과 전년 대비 4단계 오른 19위를 기록했다. 이는 최초로 10위권에 든 기록이다. 또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10년 세계경쟁력 평가’에서도 전년 대비 4단계 오른 23위에 올랐다. 이 역시 1997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규제개혁에 대해 기업들도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회원사에 대한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이 2008년의 8.9퍼센트에서 2009년 27.1퍼센트, 2010년 39.1퍼센트로 급격히 상승했다.

10월 21일 서울 답십리5동 동대문구상공회 사무실에서 열린 ‘중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위원회’ 간담회. 지역 상공인들이 규제개혁이 필요한 사안을 지적하고 있다.

최근 <한국경제신문>이 올해의 다산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한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 신문에 실은 수상자 기고문을 통해 “지금 심각하게 논의하고 실행해야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제도개혁”이라고 밝혔다. 또 “제도의 선진화 없이는 다른 선진국들과의 경쟁에서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은행 ‘Doing Business 2010’ 평가에서 19위 기록

조 교수는 “특히 자유무역협정(FTA)을 세계의 주요 국가와 체결해나가고 있는 지금 제도개혁이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교육, 사회복지 등 전 분야에서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개혁위원회 안충영 민간위원장은 “아직 관광, 보건, 의료, 방송통신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이 필요하고, 비현실적인 인허가 요건과 대·중소기업 간 거래질서 합리화 노력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어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일반 국민의 체감도를 높여 모든 국민이 규제개혁 성과를 고루 나눌 수 있도록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의 규제개혁을 강화하고 동시에 소통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G

글·박경아 기자

창업문턱 낮추고 투자환경 좋게…

산단 승인 절차 축소 등 경영 활동 개선 노력 활발

정부는 출범 후 줄곧 유망한 기업이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아온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왔다. 이러한 규제개혁은 창업과 투자를 촉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중소기업청의 재택창업시스템을 이용해 설립한 '마패'의 직원들이 자사에서 개발한 카메라 시스템의 성능을 시험하고 있다.

창업 및 진입규제 완화 통한 기업 투자환경 개선

지난해 어안·볼록렌즈를 이용해 사각지대가 없는 폐쇄회로 TV(CCTV) 카메라 시스템을 개발한 호서대 이인정 교수는 벤처기업을 설립하려고 했지만 난관에 부딪혔다. 그가 개발한 상하좌우로 움직이는 카메라는 획기적인 교통통제 시스템 장비로 평가받을 만큼 경쟁력이 있었지만 창업 절차도 까다롭고 사업자 등록부터 회사 설립 등기까지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았다. 이 때문에 창업을 미뤘던 그는 올해 1월부터 중소기업청이 운영하기 시작한 재택창업시스템(www.startbiz.go.kr)을 우연히 접하고 클릭 몇 번으로 집에서 창업 절차를 모두 끝냈다.

재택창업시스템에 접속해 '마패'라는 회사를 설립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3일. 법인등기,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을 위해 세무서와 법원등기소 등 6개 기관을 방문해 27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가능했던 창업 절차가 간단하고 쉽게 바뀐 덕분이었다. 이 시스템은 창업 절차를 8단계에서 4단계로, 창업에 드는 시간을 14일에서 7일로 줄이고 40만원의 소요비용을 아낄 수 있게 한 것이 큰 장점이다. 재택창업시스템을 이용한 1호 창업자인 이 교수는 "재택창업시스템에 들어가 창업 절차를 밟으면서 회사에 대한 애착과 성취감을 느꼈다"며 "각종 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상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간편하게 회사를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출범 후 2년 반 동안 창업, 경영 등에 걸쳐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토대를 만들기 위해 걸림돌로 작용하는 각종 규제와 시스템 개선에 힘써왔다. 창업이 활성화되고 기업 환경이 좋아지면 투자도 늘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택창업시스템 구축 외에도 최저자본금제 폐지, 소기업의 공증 면제 등을 통해 창업 절차 간소화와 비용 절감을 유도하고 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법인을 설립할 때 채권매입 의무를 폐지하는 등 창업 부담 줄이기에도 공들였다. 이 같은 노력으로 세계은행(World Bank)이 평가한 우리나라의 창업환경 순위는 2008년 1백26위에서 지난해 53위로 껑충 뛰었다.

또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대규모 기업집단의 출자총량을 회사 순자산의 40퍼센트 이내로 제한하던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없애고,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해 자사주 취득 등으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포이즌필 제도를 도입했다.

재택창업시스템 구축 등 창업 절차 간소화·비용 절감

경영활동 개선을 위한 노력도 활발히 진행됐다. 동산, 채권,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포괄적 동산담보권 제도를 도입하고, 장기임대 산업단지를 공급해 분양가격이 높은 공장용지를 매입하지 않고도 저렴한 임대료로 공장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법인세 인하와 연결납세제도 도입 등을 통해 기업의 자금 조달과 경영활동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돕고 있다.

산업단지 승인 절차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하고, 인허가 기간을 48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해 산업단지의 개발과 공급도 활발해졌다. 산업단지 규모별로 사전환경성검토(15만 제곱미터 미만)와 환경영향평가(15만 제곱미터 이상)를 실시하게 하고,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의무를 폐지해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부담도 덜어줬다.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막는 규제도 과감히 없애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기관이 독점하던 사업이나 장기 독점사업의 병폐를 없애고 민간 사업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9월까지 우체국 신용카드 배송업무의 민간 개방 등 26개 업종의 진입 장벽 개선에 나섰다. 또 지난 4월까지 LPG 수입업 등록요건 완화 등 20개 과제도 연달아 추진했다. 지난해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진입규제를 10퍼센트 줄일 경우 일자리 7만5천 개를 창출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표순민 사무관은 “지난 6월 말까지 11개 과제가 완료됐으며 올해 안으로 나머지 35개 과제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불필요한 진입규제 정비에 총력을 기울여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발전 가로막던 규제 합리화

반도체의 핵심 소재인 실리콘 웨이퍼를 생산하는 기업 실트론은 발광다이오드(LED) 기초소재인 사파이어 웨이퍼 제조기술에 대한 정부 국책과제 사업장에 해당돼 경기 이천공장을 대대적으로 증설하려고 했다. 하지만 수도권 자연보전지역에 자리하고 있어 뜻을 이룰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에 대해서는 신설과 증설이 허용되면서 당초 계획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지난 6월 공장 증설 승인을 받은 이천공장에서는 현재 대규모 증설 공사가 한창이다. 건축면적이 9천3백70제곱미터에 달하는 이 공사에는 1천5백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실트론은 공장 증설이 마무리되면 1백40명의 추가 고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이처럼 수도권에 대한 투자와 건강한 발전을 가로막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우선 상수원 보호를 위해 광범위한 지역을 일률적으로 제한해 토지 이용의 비효율성, 소규모 난개발, 환경기술 개발 저해 등의 문제를 야기하던 자연보전권역의 종전 입지규제를 총량·배출 규제로 전환했다.

자연보전지역에 대한 규제가 개선돼 공장 증설의 꿈을 이룬 경기 이천시 단월동의 ‘실트론’ 이천 공장.

실트론

토지 이용규제가 합리적으로 바뀐 덕에 공장 규모를 늘릴 수 있게 된 매일유업은 비용 절감과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사진은 전북 고창군에 있는 매일유업 유기농공장.

이와 더불어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공장과 대형 건축물은 신설하거나 증설할 수 있게 하고, 개발사업 허용 범위도 6만 제곱미터 이내에서 10만 제곱미터 이내로 확대했다.

규제완화로 도시 개발·지역경제 활성화

제조업의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하기 위해 매년 공장 건축면적을 총량으로 설정해 건축을 제한하는 공장총량제의 적용 대상 규모는 연면적 2백 제곱미터 이상에서 5백 제곱미터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단 경제자유구역,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등 국가가 정책적으로 개발하도록 확정된 지구 내 산업단지는 총량규제에서 배제했다.

금융중심지 내 금융업소와 산업단지의 연구개발(R&D) 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내 대형 건축물에 부과하는 과밀부담금을 물지 않도록 했다. 수도권 산업단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도 올해와 내년에 한해 1백 퍼센트 면제된다.

수도권 지역에 대한 규제완화로 지역 특색에 맞는 도시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인천광역시 송도지구와 청라지구다. 국토해양부가 지역의 전략적 개발을 위해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한 송도지구와 청라지구는 첨단 산업클러스터 활성화를 목표로 국내 대학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인천경제자유구역과 동두천시, 황해경제자유구역도 산업단지 지정을 계기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김준석 규제개혁담당관은 향후 계획에 대해 "단기적으로 기업 활동 및 주민생활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현행 체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중·장기적으로는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수도권을 유연하게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지 이용규제 합리화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자연녹지지역에 공장을 둔 매일유업은 최근 유가공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 공장 증설이 절실했다. 하지만 자연녹지지역은 건폐율이 20퍼센트로 제한돼 있어 공장 규모를 늘릴 수 없었다. 공장 이전도 고려했으나 약 1천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돼 감행하기가 어려웠다.

때마침 자연녹지지역 등 보전지역의 경우 환경오염 우려가 없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을 2011년 7월까지만 한

시적으로 40퍼센트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광산구는 지난 6월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매일유업의 건폐율을 19.9퍼센트에서 40퍼센트 이내로 높이고 공장 증설을 허용했다.

매일유업은 공장 증설에 드는 비용을 공장 이전 비용의 10퍼센트인 1백억원 정도로 본다. 토지 이용에 적용되던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된 덕에 매일유업은 비용 절감과 매출 증대 효과를, 지역민들은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토지이용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기업을 위한 토지공급이 대폭 늘어났다. 정부는 우선 79개의 특정 업종에 대한 소규모 공장 입지규제와 소규모 공장 설립 시 사전환경성 · 재해영향성 협의를 거치도록 한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공장이 좀 더 쉽게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농지 전용 절차 신고제 전환 · 산지 이용 절차 간소화

또 폐수를 배출하지 않더라도 상수원보호구역에서 10~2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야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한 규제를 개선해 7킬로미터 밖에서부터 지을 수 있게 했다. 계획관리지역 안에 증설하는 공장의 건폐율도 2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2배 확대해 기존 공장의 증설이 가능하도록 배려했다.

상수원 상류지역의 공장입지 제한 완화로 전국적으로 68개 공장이 새로 입지 허가를 받았으며 이로써 7백96억원의 투자 효과와 1천1백5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 등에서 연접개발을 할 때는 기존 면적과 개발면적을 합산해 개발을 제한하는 연접개발제도의 합리화도 실현했다. 연접제한 합산의 기준을 5백 미터에서 2백50미터로 완화해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2003년 이전에 세워진 공장과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계획적으로 개발된 지역 등은 2011년 7월까지 한시적으로 합산면적에서 제외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대규모 단일시설물 등은 연접제한에서 배제한다.

정부는 농지 전용 절차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산지 이용 절차도 간소화해 토지 이용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산림청은 산지 전용 허가기준인 보전산지 편입비율을 50~75퍼센트에서 최대 97퍼센트로 완화하고, 보전산지 내 영구 진입로를 허용함으로써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는 경제자유구역 및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설치시설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을 한시적(2009년 7월~2011년 6월)으로 50퍼센트 감면해주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규제개혁담당관실 이호재 서기관은 "토지 이용 규제 합리화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의 투자와 기업도시개발사업이 활발해졌다"며 "그 덕에 농어촌지역에 레저형 체육시설이 많이 생겨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외국인 투자 관련 제도 개선

제주 서귀포시 예래동에 있는 휴양형 주거단지는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외국인 직접투자(FDI) 4억7천9백만 달러를 유치했다. 지난 9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에 채드윅송도국제학교가 문을 열자 송도웰카운티의 외국인 임대주택 42가구의 계약이 완료됐으며 내년 9월에는 22가구, 2012년 9월엔 21가구의 외국인이 입주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는 외국인 투자 이행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투자이행계획을 완료한 후 증자로 외국인 투자지분이 하락한 경우 기존 임대료를 적용하는 등 매력적인 투자 여건을 조성했다.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에서 건축면적이 5백 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 증설, 이전도 가능하다.

외국인 투자 이행기간 3년→5년으로 연장

휴양콘도미니엄업 등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부품 · 소재 전용공단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는 토지임대료 감면율도 75퍼센트에서 1백 퍼센트로 늘렸다. 또한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공급 확대, 잠재적 외국인 투자자에게 공항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카드 발급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서 더 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실시계획 승인 권한을 시도 지사에게 위임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병원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한 것도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지식경제부 전응길 법무담당관실 조혜진 주무관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출입국 때 요구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파격적인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등 경쟁국 수준 이상으로 조성된 투자환경이 앞으로 외국인 투자 활성화에 기폭제 노릇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G

글 · 김지영 기자

동아DB

서민과 취약계층의 '내 집 만들기'를 위한 규제 개선 노력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무주택 서민 주택수요를 맞추기 위해 보금자리 주택 공급을 확대한 것도 주거 안정 확보를 위한 규제개혁의 큰 성과다.

서민 주거·복지 피부에 와닿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내집 마련 요건 완화 등 규제 개선

취약계층에겐 안정된 집에서 사는 것, 세금이며 병원비와 약값 걱정 없이 스스로 번 돈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평생의 꿈이자 현실의 절대적 고민거리다. 이들에게 주거, 복지 차원에서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복지 사각지대로 더 깊숙이 밀어넣는 꼴이다. 정부가 단순한 규제완화에서 벗어나 제도 개선과 현장 중심의 애로 개선을 병행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1 서울 소재 대학 등 4개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일하고 있는 진성훈(가명·52) 씨. 그는 월 50시간가량 강의를 한다. 대학 시간강사치고는 제법 강의가 많은 편이라 그나마 한 곳도 자리 잡지 못한 후배들보다는 마음이 여유롭다. 하지만 그렇다고 여기저기에 자랑할 처지도 못 된다. 매달 내는 연금보험료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기존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되기 위해선 월 8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 진 씨의 경우 기준 시간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연금보험료 전부(소득의 9퍼센트)를 본인이 낼 수밖에 없다. 자녀가 있는 그로서는 단 몇 만원이 아쉬운 상황에서 이는 큰 부담이었다. 학교 측에 편법으로 강의 시간을 늘려달라고 할 수도 없었다.

그러던 차에 진 씨는 지난 9월부터 보험료 부담을 덜었다. 보건복지부가 사업장가입자 가입 기준을 월 근로시간 80시간 이상에서 월 60시간 이상으로 완화한 것이다. 또한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를 하는 경우, 특히 대학 시간강사나 '사용자의 동의를 받은 사람'은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이러한 규제개선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9월 1일 개정이 완료됐다.

진 씨는 월 근로시간이 60시간에 미치지 못하지만, 3개월 이상 생업 목적 근로자라는 국민연금 가입 확대 기준에 포함돼 사업장으로부터 보험료 절반(9퍼센트 중 4.5퍼센트)을 지원받게 됐다. 소득이 3백만원이라면 기존엔 27만원을 내던 연금보험료가 13만5천원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는 사업장가입자보다 취약한 단시간근로자의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준 결과다.

국민연금관리공단 홍보실 신재철 차장은 "단시간근로자(월 60~80시간 근로)와 대학 시간강사 등 약 10만명 이상이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편입돼 연금보험료 부담이 완화됐다"며 "향후 사업장 실태조사,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해당 단시간근로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서민들의 건강관리 보장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건강보험 역시 보장성을 강화하고 본인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계속 개선되고 있다.

전체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증 화상 환자에 대해서는 입원·외래 본인부담률(5퍼센트)을 일반 환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기존엔 입원 20퍼센트, 외래 30~60퍼센트였다. 이러한 본인부담률 조정으로 환자 개인당 40만원 정도의 의료비가 줄게 됐다.

실제 몸통에 3도 이상이면서 체표면적 10퍼센트 이상의 화상을 입은 환자가 종합병원에 한 달간 입원해 진료를 받을 경우, 기존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은 1백6만7천5백90원. 그러나 보장성 확대에 따라 비용은 4분의 1 수준(26만6천9백90원)으로 줄었다.

이에 앞서 지난해에는 암(10퍼센트→5퍼센트)과 희귀난치성 질환자(20퍼센트→10퍼센트) 등에 대한 의료급여 본인부담률을 낮췄다. 이를 통해 그동안 암환자 67만명에게서 약 1천3백억원의 의료비가 절감됐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55만명에게서도 약 1천4백억원의 의료비 절감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암, 뇌·심장 질환자, 중증 화상자에겐 '본인부담 상한제' 도 함께 적용하고 있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소득수준에 따라 1년간 진료비가 보험료 기준 진료비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에 대해 환급하는 제도다.

이 밖에도 현재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전립선암 3세대형 냉동 제거술 등의 비급여 암 치료에 대해서도 급여화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결핵 환자에 대해서도 기존 부담금(입원 20퍼센트, 외래 30~60퍼센트)이 입원, 외래 구분 없이 10퍼센트로 낮아졌다. 척추 및 관절질환 MRI 진단 시에도 이젠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로자 소득 요건 100퍼센트 하향 조정 등 주거 지원책 강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도 확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공주영 주무관은 "일명 '고운맘카드' 제도로 올해에는 개인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지원 금액을 늘렸으며,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10만원씩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인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지원 기준도 완화했다. 올해 7월 1일부터는 장애인연금의 급여액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고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의 근로소득 공제율을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인상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 중이다. 중증 장애인이 일상생활 및 간병,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도 최근 입법 예고를 거쳐 내년 10월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8년 10월엔 이미 저소득층 노인의 최저생활 보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결혼한 자녀의 집에서 거주하는 노인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별도가구로 인정하는 특례를 확대했다.

기존엔 '결혼한 딸'에 대해서만 특례를 인정했다. 결국 별거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인 노인이 모든 자녀와 동거하더라도 수급 자격을 유지시켜 서민 자녀들의 부양비 부담을 더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 특별 공급제도를 도입하고 생애 최초 주택 마련 특별공급 요건도 완화했다. 실직 및 폐업 상태라 하더라도 5년 이상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소득 신고를 할 경우 청약 기회를 부여했다.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 규제 개선도 성과를 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2008년 6월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 특별 공급제도를 도입해 주택 가격 인상으로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서민 신혼부부들의 짐을 덜어주고 있다. 올해 2월에는 공급 규모도 전용면적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로 확대했다.

같은 달에 생애 최초 주택 마련 특별공급 요건도 완화했다. 특히 실직 및 폐업 상태라 하더라도 5년 이상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소득 신고를 한 경우 청약 기회를 부여했다. 소득 요건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80퍼센트에서 1백 퍼센트로 하향 조정했다. 또한 지난해 3월엔 영구임대주택 입주 예정자들을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로써 입주 예정자들은 좀 더 싼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5인 미만의 상시 종업원을 가진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도 근로자주택 입주 자격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근로자 주택 공급 및 관리 규정'을 개선했다.

국토해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찬희 주무관은 "향후엔 계층별 서민 수요자에 대해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가 정비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는 세분화된 주택 유형 개발과 1, 2인 가구 및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응한 주택 공급과 금융 활성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G

글 · 유재영 기자

경제의 축 '中企·소상공인' 능력 키운다

불필요한 규제 폐지하고 필요한 규제 만들어 서민경제 이끌어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정부의 규제개혁 활성화는 반가운 소식이다. 불필요한 규제가 없어지고 필요한 규제들이 생겨나면 이들이 다시 꿈꿀 수 있는 희망을 얻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규제개혁 성과들을 알아봤다.

#1 20년 넘게 LCD, PDP TV의 프레임과 케이스를 생산해오고 있는 파버나인. 국내에서 드물게 알루미늄 피막 산화처리(아노다이징) 전자동 라인을 보유한 이 회사는 지난 3월 세계에서 가장 얇은 7.98밀리미터 초슬림 TV의 프레임을 만들어 다시 한 번 알루미늄 표면처리 분야의 강자임을 드러냈다. 올 연말까지 7백억원의 매출 목표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는 파버나인이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강타했을 때 재기불능 상태로 치달았다.

하지만 월급도 못 받으면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을 생각하며 이제훈 사장은 "여기서 쓰러져선 안 되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대출 회수에만 급급한 은행 대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손을 내밀었다. 회사의 높은 기술력과 미래가치, 위기극복에 의욕적인 직원들을 높이 평가한 공단 측은 5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그 덕분에 파버나인은 올해 엄청난 매출 증가와 함께 초슬림 TV 프레임 양산을 본격화하고 있다.

#2 인터넷 정보단말기 및 무선보안장비 전문업체 아반티스는 2008년 애플사의 아이패드와 동일한 제품을 선보였다. 가정용 커넥티드 단말기라 불리는 웹비(Webby)다.

이탈리아 등 유럽시장에 진출해 효자 상품이 된 웹비의 탄생 비결은 연구개발(R&D) 분야에만 투자하는 회사의 마인드 덕분이다.

하지만 제품 생산은 전문협력업체를 활용하는 터라 생산설비 자체가 없는 아반티스에 은행 문턱은 높았다. 제품 특성상 자금 회수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자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김두명 대표는 고민 끝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문을 두드렸고 지난해 3월 2억5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김 대표는 "기업의 잠재력과 기술력으로 지원받은 정책자금이 큰 도움이 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가정용 커넥티드 단말기 시장에서 세계적인 플레이어로 성장하고 싶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회생한 파버나인. 공장 생산라인에서 직원이 LCD TV 부품을 검사하고 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사례집에 담긴, 기술력과 위기 극복 능력으로 우뚝 선 작지만 강한 중소기업 사례들이다. 이들의 능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었던 데는 정부의 규제개혁 지원이 뒷받침이 됐다.

현재 우리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설명할 때 흔히 '9988'이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 중소기업이 전체 사업체 수의 99퍼센트, 고용의 88퍼센트를 차지한다는 뜻이다. 이처럼 중소기업은 양적으로는 팽창했으나 질적인 성장은 부진했다. 이런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서민경제의 축을 맡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규제개혁을 주도해오고 있다.

그중 가장 초점을 맞춘 것은 중소기업이 원활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적 지원 부문이다. 자금난은 중소기업의 존폐를 좌우한다. 그런 상황에서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지원하는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에는 소중한 구원투수다. 자금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각종 규제 없이 수월하게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제한규정 완화

특히 올해는 더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제한규정을 완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이 정책자금을 신청할 때 8가지 항목에 대해 사전평가를 실시해 3개 이상 해당될 경우 기술성에 관계없이 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앞으로는 기술성이 우수한 기업이 사전평가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기술사업성 심층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기술사업성 전용자금을 신설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중소기업들이 한계를 보이는 업종이나 품목에서 과감히 벗어나 새로운 블루오션을 개척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 지원 대상도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서 건설업, 광업 등으로 전면 확대했다. 사업전환 이전 업종에 대한 제한이 풀린 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21개 업체를 승인했고 현재 15개 기업에 11조8억3천1백만원을 융자해준 상태다.

또한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 패스트 트랙(Fast Track) 프로그램 시행 이후 지난 5월 말까지 1만1천5백39개 기업에 27조원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했다.

중소기업 가업 승계 시 가업 상속 공제율을 40퍼센트로 늘리고 공제한도도 1백억원으로 인상하는 등 세제 지원 규제개혁도 시행됐다. 중소기업에 종합적,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법률지원단'도 출범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력을 중시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으로 가정용 커넥티드 단말기 웹비를 만든 아반티스는 다시 설 수 있었다.

소상공인을 위한 영업환경을 개선하는 규제개혁도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004년부터 계속해온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경우 민간 부담 비율을 기존 10퍼센트에서 지난해 5~10퍼센트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더욱 많은 상인들이 시장 리모델링을 원해 올해 1백91곳에서 내년 2백25곳으로 시설 현대화 사업이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또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퇴직금제도라 불리는 노란우산공제 대상을 '무등록 소상공인'으로까지 확대한다. 2007년 정부가 도입한 이 제도는 영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폐업, 퇴임, 노령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업 재기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노란우산공제 대상, 무등록 소상공인까지 확대

이번에 가입 대상에 포함된 무등록 소상공인은 무등록 사업자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제공자'로 외판원, 배달원, 학원 강사, 간병인 등이 포함되며 전국적으로는 약 36만명에 이른다.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진흥원과 함께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작지만 손질이 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오고 있다. 지난해 39건의 규제를 개선했으며 올해도 카드매출액 부가가치세 신고제도, 4대 보험료 납부제도, 중소기업·소상공인·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업무 등 8건의 영업환경 규제를 개선했다.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신훈묵 사무관은 "영세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영업환경 규제 발굴 및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

글 · 김민지 기자

규제개혁, 미래 성장동력의 디딤돌

녹색성장산업 규제 완화·글로벌 고급인력 유치로 경쟁력 강화

국가 잠재력의 발현을 위해서는 사람이든, 기업이든, 교육·산업 시스템이든 각기 나름의 장점을 발휘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안정적인 여건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 규제 장벽을 낮추는 일은 미래 성장기반인 녹색기술과 신재생에너지, 각종 첨단산업, 금융·서비스산업의 육성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조건'이다.

#1 경북 예천양수발전소는 물의 낙차를 이용해 전기를 얻는 방식으로 따지면 국내 최대 규모다. 심야전력을 이용해 하부의 저수지 물을 상부로 끌어올린 뒤 전력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낙차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 공급하는 시설로, 이곳 부지 내에선 최근 또 다른 발전소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차세대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서는 것. 발전 용량도 2메가와트로 대형이다. 그간 국내 태양광산업은 조력이나 풍력에 비해 국내 환경에 훨씬 적합한 신재생에너지라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대형화, 산업화 속도가 더뎠다. 고유가 시대의 대체에너지로서 중요성을 절감하지만 그 기반은 독일 등 선진국 수준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주된 원인은 건설조건의 제약이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기존 발전소 부지에 신재생에너지를 전원으로 하는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할 때는 3천 킬로와트 범위 내에서 허가를 면제한다. 결국 평균 발전량이 많은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은 법으로 규제돼온 셈이다. 국내에는 연간 일사량이 2천5백 시간 이상 되는 지역이 여러 곳 분포해 있는데도 이처럼 발전소 내 유휴부지 활용 면에서 낭비 요소가 발생해왔다.

이에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9월 기존 발전소 부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엔 용량의 한계 없이 허가를 면제하도록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법령 개정으로 예천양수발전소 외에도 전남 영광 원자력발전소 내 태양광발전소(10메가와트)와 당진화력발전소 내 태양광발전소(1메가와트) 건립사업이 추진 중이다.

지식경제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혜진 주무관은 "발전소당 2억원 내외의 인허가 비용을 절감했으며 행정업무 소요 일수도 3개월 단축해 발전소 조기 준공을 유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2 울산광역시 용연공단 내 코리아PTG, KP케미칼, 한솔EME, SKC 등의 기업은 지난해부터 에너지 공생 네트워크를 구축해왔다. 각 사의 공장에서 발생한 고압, 중압, 저압 잉여 스팀을 서로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스팀공급배관을 네트워크화한 것이다.

코리아PTG는 공장 가동 시 고압스팀이 발생하지만 실제 공정에서는 저압과 중압스팀이 사용된다. 고압스팀을 저압과 중압스팀으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설비 자금이 소요된다. 이에 코리아PTG는 인근 KP케미칼에서 생산되는 저압스팀과 한솔EME의 중압스팀을 공급받았다. 대신 자사에서 생산된 고압스팀은 SKC로 팔아 새로운 수

동아DB

차세대 에너지로 부각되는 태양광발전소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완화를 통해 앞으로는 기존 발전소 부지의
발전량에 대한 제한 없이 건립될 수 있을 전망이다.

동아DB

산업단지 입주 기업체의 생산 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열 등의 자원화를 허용하는 법률이 통과돼
공장 간의 경제적인 에너지 대환이 가능하게 됐다.

익을 얻었다. 코리아PTG가 스팀 대체 사용으로 얻는 이익은 연간 40억1천만원. 이산화탄소도 1년간 3만4천9백6톤이 저감됐다. 대기오염물질 발생량도 연간 2백46.6톤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산업단지 입주 기업체의 생산 공정 또는 폐기물 처리 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열과 폐증기의 자원화를 허용하는 법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도 지난해 8월 개정돼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

녹색 성장산업의 규제도 완화되는 추세다. 지난해 10월엔 온실가스 감축사업 확장 차원에서 사업자등록 시 소규모 사업의 연합 신청이 허용됐다. 기존엔 등록 요건이 연간 5백 톤이어서 소규모 사업자들의 등록이 쉽지 않았다. 등록사업의 검인증 비용(1건당 3백만원)도 정부에서 지원돼 중소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해 7월엔 비성형 고형연료제품(RDF) 사용이 허용됐다. 기존 규정엔 보일러 특성이나 사용자의 사용 조건과 관계없이 성형 고형연료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생활폐기물 연료화에 많은 제약이 따랐다. 비성형 고형연료제품은 성형제품에 비해 시설 설치비가 15퍼센트 적게 들고 운영 비용도 37퍼센트 절감할 수 있다.

대학 선진화와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되고 있다. 인적 자본 확충이라는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의 의미가 크다.

대학 운영 자율화의 경우 2008년 1, 2단계 57개 자율화 과제가 발굴된 후 지난해 6월까지 36건이 완료되거나 시행됐다. 나머지 15건은 국회 계류 중이고, 3건은 관련 법률 개정 후 추진될 예정이다. 3건은 추진이 보류된 상태다.

그간 학생 모집 단위를 자율화하고 대학 정원 자체조정 시 교육여건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등 학사와 학생 정원, 교직원 인사 분야에서 다양한 규제 개선이 이뤄진 가운데, 계약학과 설치·운영 권역 범위 확대, 교원의 최소 근무소요연수 지침 폐지 등의 성과가 두드러진다.

계약학과 설치·교원 승진소요연수 지침 폐지

우선 대학과 산업체가 특정 분야에 대해 공동으로 신설하는 계약학과의 경우 기존엔 서울에 소재한 산업체만 가능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부터 지방으로까지 권역을 확대했다.

동아DB

대학(원)생의 실험실 공장 설립이 허용됐다. 이로써 이들의 연구성과물 등을 활용한 기술 창업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고려대는 경기 이천시의 하이닉스반도체와 '나노반도체공학과'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서울과학기술대도 올해 학부 3개 과와 1개 대학원을 계약학과로 새로이 개설했다. 올해 대학원에 개설된 가스공학과의 경우 이미 2005년부터 경기 시흥시에 자리한 한국가스공사와 맺은 산학협력과정이 있지만 이번엔 추가로 성남지부 한국가스공사와 협약을 맺고 계약학과로 만들어졌다.

서울과학기술대 박건웅 산학협력팀장은 "실무와 직접 연계해서 학문을 익힐 수 있어 신입생뿐 아니라 자기 분야를 더 전문적으로 공부하려는 직장인들에게도 관심이 높다는 게 계약학과의 장점"이라며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의 권역이 넓어져 더 많은 산업체와의 교류가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학생연구원 인건비 조정 · 대학생 실험실 공장 허용

부경대는 교원의 직명별 최소 근무소요연수에 관한 지침을 폐지했다. 전임강사→조교수→부교수→교수로 이어지는 승진소요연수 내에 달성하는 일정 수준의 연구·교육 업적을 조기 충족할 경우, 최대 1년 6개월의 승진소요연수를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교원들의 연구 성과 제고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연구개발(R&D) 및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도 완화되고 있다. 우선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소기업의 설립 주체를 확대했다. 특구 이외 지역의 공공 연구기관 등도 설립이 가능해진 것이다.

올해 3월엔 그 절차도 승인제에서 등록제로 완화됐다. 연구소기업 설립 주체 확대로 2014년까지 47개 연구소기업을 설립하고 7백5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된다.

지난해 9월엔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요건도 완화됐다.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퍼센트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간 연구개발비 기준엔 구입 장비 비용과 감가상각 비용이 포함되지 않아 기업 처지에서는 부담이 컸던 게 사실. 완화된 요건엔 연구개발비 항목에 연구시설투자비와 장비구입비가 포함됐다. 지정 요건이 완화된 이후 6개 기업이 재지정을 받고 23억여 원을 연구개발에 재투자했다.

▲ 지난해부터 국내 병원과 대행사의 외국인 환자 국내 병원 유치와 알선이 허용되면서 환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첨단기술기업' 지정 요건도 완화했다.

계약학과는 실무와 직접 연계해 학문을 익힐 수 있어 신입생뿐 아니라 자기 분야를 더 전문적으로 공부하려는 직장인들도 입학에 대한 관심이 높다.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의 권역이 넓어져 더 많은 산업체와의 교류가 가능하게 됐다.

기술창업 활성화와 연구인력 육성 차원에서 학생연구원에 대한 인건비가 상향 조정됐고, 특히 올해 1월엔 대학(원)생의 실험실 공장 설립도 허용됐다. 기존엔 대학 연구시설 내 실험실 공장 설치 주체가 교수나 연구원으로 한정돼 대학생들이 연구 성과물 등을 활용하고 검증할 기회를 가질 수 없었다. 법 개정을 통해 대학원생 창업자 2백50여 명 내외 중 약 10퍼센트가 실험실 공장을 활용해 창업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대기업 방송산업 소유 제한 규제 완화

글로벌 고급인력 유치를 위해선 지난해 3월 고용창출 외국인 투자가의 영주자격 부여요건을 완화했으며, 우수 산업 재산권을 활용해 창업하고자 하는 외국 인력에 대해선 기업투자(D-8) 비자 발급 요건도 개선했다.

금융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규제개혁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금산분리 완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손질했다. 지난해 4월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4퍼센트에서 9퍼센트로 상향 조정했다. 올해 2월엔 기업구조 개선, 회생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구조개선펀드도 도입했다.

외국인 환자의 국내 병원 유치, 알선을 허용하는 등의 서비스 산업 규제개혁도 지난해부터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해 5월 외국인 환자 유치 규제가 풀린 이후 전년 대비 외국인 환자가 큰 폭(2008년 2만7천4백80명 → 2009년 6만2백1명)으로 증가했다.

방송산업에 대한 외국인과 대기업의 소유 제한 규제도 완화됐다. 종합편성채널 20퍼센트, 보도전문채널은 10퍼센트의 지분 소유가 허용되고, 위성방송 지분 소유 한도도 33퍼센트에서 49퍼센트로 높아졌다.

지난해 7월부터는 가상·간접광고가 허용되고 공적 법인에 의한 방송광고 사전심의제도가 폐지됐다. 이에 간접광고 매출액이 올해 5백33억원에서 2013년 1천1백84억원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이 밖에도 관광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광단지 지정 때 최소 면적 기준을 완화했고 골프장 공급·이용 개선 면에서도 규제개혁 성과가 나타났다. G

글 · 유재영 기자

전자정부 서비스… 인감제도 개선… 군사시설보호구역 최소화…

'걸림돌' 모두모두 치워드립니다

국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 민원서류 때문에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고, 경제활동에 지장이 되는 규제는 사라지며, 학력이 아니라 능력으로 인정받는 진정한 선진국이 만들어지고 있다.

일러스트 · 이우정

홍성길(가명 · 65) 씨는 얼마 전 기초노령연금 지급 신청을 했다. 신청을 하려면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예전 같으면 서류를 떼기 위해 등기소, 주민센터 등을 오가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을 것이다. 하지만 홍 씨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만 가지고 구청에 가서 바로 처리할 수 있었다.

이는 e하나로민원(행정정보 공동 이용 서비스) 덕분이었다. e하나로민원은 민원 신청을 할 때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업무 담당자가 전산망으로 정보를 확인해 업무를 처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다.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많이 사용되는 82종의 서류는 민원인이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은 구비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관공서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관공서는 종이서류를 관리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다. 행정안전부 조사 결과 민원 사무는 구비서류 1건당 평균 5천82원, 행정기관 내부 사무는 1건당 3천41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업무가 편리해진 것은 이뿐이 아니다. 대부분의 민원은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다. 지난 9월 30일 기준으로 정부 민원포털 '민원24'에서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2천3백여 종. 이는 전체 민원 수요의 80.2퍼센트에 해당한다. 온라인 민원을 이용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수료가 무료이거나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했을 때보다 발급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행정안전부 임채호 제도정책관은 "연말까지 모든 가능한 민원(3천 종)의 온라인 개발을 완료해 국민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되면 연간 6천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감제도도 개선됐다. 2백9종의 인감증명 요구 사무 가운데 1백20종(60퍼센트)이 폐지됐다. 이로써 부동산, 채권 양도, 공증 관련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에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연간 4천8백만 통이 발급되던 인감증명서가 1천만 통가량 감소하고 연 4백60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과도한 29건의 법정 의무교육을 폐지 또는 완화했다.

그동안 택시 및 버스 운전기사는 매년 정기 보수교육을 받아야 했으나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법규 위반자에 한해 받으면 된다. 또 노래방 사업자는 매년 받아야 했던 법정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고, LPG차량 운전자의 경우 온라인으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1백만명의 영업자가 부담을 덜게 됐다.

정부는 또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최소화해 개인 재산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다. 통제보호구역을 군사분계선 남방 15킬로미터 이내에서 1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보호구역을 군사분계선 남방 15~25킬로미터에서 10~25킬로미터로 축소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이 금지되나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군 작전과 관계가 없으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한도 내에서 신축이 가능하다. 국방부는 2008년 이후 군사시설보호구역 총 60억5천7백만 제곱미터의 14.4퍼센트인 8억7천2백만 제곱미터(여의도 면적의 2백96배)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군 비행장 주변의 고도제한 규정도 지역적 특성과 비행 절차 등을 고려해 재조정했다. 경기 성남시의 서울공항을 비롯해 대구, 광주, 원주, 목포, 사천비행장 등 10개 공군기지의 고도제한이 완화됐다.

목포공항의 비행안전구역이 2백11만 제곱미터에서 23만 제곱미터로 축소됨에 따라 현대삼호중공업의 크레인 증설이 가능해져 8천2백61억원의 수출 증대와 2천1백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냈다. 또 서울비행장의 헬기 장주고도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서울 강남 세곡지구 보금자리주택 2천1백21가구 건설이 가능해졌다.

규제개혁은 자율성 강화로도 이어졌다. 학교에서는 어린이신문 구독, 학습 부교재 선정 등 3백58개 지침이 폐지되면서 학사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졌다. 지난해부터는 교육과정, 교직원 인사, 자율학교 확대 등 핵심적인 권한을 단위학교에 직접 부여해 교육 수요자 중심의 학교교육 다양화를 진행하고 있다. 학교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군 비행장 고도제한 규정, 지역 특성 등 고려해 재조정

농촌학교에서 부족하기 쉬운 기초교육과 감성교육에 중점을 두고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산 배영초등학교 이승희 교장은 "자율학교 운영은 지역사회와 학교 규모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어 학생과 학부모들의 요구에 좀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교육 시스템 개혁과 더불어 학력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학력 차별 철폐에도 적극적이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7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인사 운용과 관련해 남아 있던 3백16건의 학력규제 중 2백87건(91퍼센트)의 학력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했다.

학사 이상 학력자를 채용하던 식품의약품안전청 전문심사원을 비롯한 1백4건은 채용 직위에 전문성이 필요 없다고 판단돼 학력 규제를 폐지했고, 초임 산정 시 학력에 따른 차등 호봉을 적용한 영화진흥위원회 등 92건은 승진 및 보수 산정에서 학력 가점을 폐지했다.

정부는 공공 부문 학력차별 완화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력지상주의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능력중심사회로 바뀔 수 있도록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동참을 촉구할 예정이다. G

글 · 이혜련 기자

e하나로민원 pr.share.go.kr
민원24 www.minwon.go.kr

국민안전 우선 '법 테두리' 만든다

일관된 기준 없는 행정제재 조정하고 생명 위협하는 행위에는 법 적용 강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 집행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엄격한 법 적용은 법질서 확립과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동전의 양면이라 할 수 있다. 법과 질서를 지키면 누구나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정보통신업체 A기업은 공사 수주 증가로 사업이 확장되고 있던 중에 실무자의 실수로 '공사업 등록을 한 후 3년이 지날 때마다 30일 이내에 등록기준을 신고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위반했다. 이 때문에 A기업은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사업에 타격을 입었다.

A기업처럼 불합리한 행정제재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이 적지 않다. 2008년 대한상공회의소가 3백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57.9퍼센트가 '현행 행정제재 처분이 과도하다'고 답했고, 46.1퍼센트는 '위반 사유와 상황을 고려치 않고 처분이 이루어진다'고 응답했다.

과도하거나 상황을 고려치 않은 기계적인 행정제재는 제품과 서비스 공급에 차질을 빚어 기업의 매출 손실을 가져오고 종사자의 일시적 실업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기업 하기에 좋은 법적 환경을 만들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행정제재 처분의 합리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과태료 · 영업정지 중복제재 완화 위해 63개 법률 정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과도하거나 일관된 기준이 없는 각종 행정제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행정제재 처분기준을 두고 있는 2백13개 법령 가운데 가중·감경 기준이 없거나 추상적인 1백47개 법령의 가중·감경 기준을 명시했다.

또 사업자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등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기준은 완화했다.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경고나 시정명령으로 자발적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15개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공통의 처분기준을 마련했다.

법제처는 이 같은 행정제재 처분의 합리화로 40여 만명의 사업주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영업정지 감소 등으로 연간 6천억원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과태료(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와 과징금(불법이익 환수 또는 영업정지 대체의 금전적 제재) 및 벌금(범죄인에 대한 금전지급의무 부과 형벌) 부과도 개선했다. 과태료와 과징금 또는 벌금을 중복 부과하는 등 이중적 금전제재를 하는 1백59개 법률을 정비하고, 과태료와 영업정지의 중복제재를 완화하기 위해 63개 법률을 정비했다. 또 53개 법률을 정비해 불필요한 과태료를 폐지했다.

과태료는 자동차 검사, 주민등록 전입신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무 위반 시 부과되며 각종 신고, 보고, 장부 기록과 보관 등 기업 활동과 관련된 위반행위에는 대개 과태료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가 합리화됨으로써 국민생활과 기업 활동에서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산업연구원은 과태료 부과 개선만으로도 약 2천8백억원의 국민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시대에 맞지 않는 행정형벌(벌금, 징역)을 폐지하고 가벼운 행정법규 위반에는 벌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형벌을 합리화했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기존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벌금보다는 금액이 적은 형벌)에 처했으나 인터넷을 이용해 면허 유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폐지했다.

법무부에서는 1백51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함으로써 연간 10만명의 전과자가 감소하고 행정비용과 국민 기회비용 등의 절감으로 1천6백1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생길 것으로 예측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운전면허 취득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국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세무조사 기간을 법령화하는 등 기업 부담을 줄였으며, 분식집 등 생계형 업종 창업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제도를 폐지하는 등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했다.

성폭력범 징역형 최고 50년 · 전자발찌 부착 최장 30년으로

2008년 3월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를 열고 지금까지 4천28건의 개선 의견을 검토했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중심으로 3백1건을 개폐과제(3백47개 법령)로 확정했다. 이 가운데 51.6퍼센트인 1백48개 법령의 정비가 끝났으며 85개 법령은 국회 제출 또는 입법절차를 진행 중이다.

법제처 국민불편법령개폐팀 안승철 서기관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국제기준에 맞지 않거나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법령,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취약계층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미흡한 법령을 집중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반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 적용이 강화된다.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성폭력 범죄에 유기징역형을 최고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인근 주민에게 우편으로 알리도록 했다. 또 아동 성폭력의 경우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20세가 될 때까지 정지하며, DNA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했다. 아울러 음주나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죄질에 따라 법원에서 감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성폭력범을 포함해 11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형 확정자와 구속 피의자의 DNA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범죄 예방과 조기 검거에 이용하기로 했다. 지난 6월 25일까지 전국 교도소에 수감 중인 DNA 채취 대상자 총 2만1천7백명 중 성범죄자를 우선 채취해 DB를 구축했다.

전자발찌 부착도 올해 7월부터 최장 30년으로 확대하고, 성폭력범 외에 살인범도 부착 대상에 포함시켰다. 전자발찌는 2008년 9월 시행 후 지난 7월까지 6백15명이 부착해 한 명만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탁월한 재범 억제효과를 보였다.

법무부 이두식 법질서담당관(부장검사)은 "앞으로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개혁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교통신호체계를 합리화함으로써 교통안전도 크게 강화됐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으로 직진신호 우선, 비보호 좌회전 확대, 점멸신호 확대 등을 실시해왔다.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직진우선 신호체계 개선으로 통행속도는 3.5퍼센트 향상됐고 지체시간은 11.3퍼센트 감소했다. 또 비보호 좌회전 및 점멸신호로 개선한 교차로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16.4퍼센트, 사망자 수 28.6퍼센트, 부상자 수 17.2퍼센트가 줄어 교통신호체계가 개선된 후 교통안전이 좋아졌음을 알 수 있다. G

글 · 이혜련 기자 / 일러스트 · 문지혜

당신은 규제개혁 주인공!

지난 7월 말 규제개혁 유공 공무원 및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규제개혁 유공자 포상 수여식이 있었다. 국무총리실에서 지난 한 해 동안 규제개혁에 공이 큰 이들을 선정해 포상한 것. 규제개혁을 몸소 실천해온 이들을 만나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들었다.

"규제개혁은 경제 활성화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황인학 산업본부장

2007년부터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일하고 있는 황인학(51) 산업본부장은 기업 관련 규제개혁의 일인자다. 규제개혁, 산업정책, 기업정책, 미래산업 등 4개 팀을 총괄 담당하고 있는 그는 22명의 소속 본부원과 함께 지난해 1백30건, 올해 1백82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뽑아냈다. 황 본부장은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강조한다.

"기업이 상품 경쟁을 한다면 국가는 제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처럼 나라도 잘 되려면 제도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제도나 규제가 상당히 복잡한 편이다. 그동안 필요한 법령들을 만들기만 했지 한 번도 정리하지 않았던 것. 그래도 황 본부장은 우리나라 규제개혁에 희망이 있다고 본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규제들을 많이 개선했기 때문이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축소, 수도권 규제완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한시적 규제유예제도 도입 등은 황 본부장이 꼽는 성공적인 규제개혁 사례다.

"서비스산업 분야 규제개혁으로 경제 활성화 견인차 됐으면"

경제학자로 알려진 그이지만 이젠 법, 행정 관련 준전문가나 다름없다. 과제 발굴에서 보고서 작성, 제도에 반영시키는 일까지 규제개혁의 전 과정에 앞장서다 보니 여러 분야에 통달해서다. 환경 및 건설교통 관련 부담금, 토지 이용 및 공장입지 등 다양한 규제개혁 성과로 지난 7월 국무총리실 규제개혁 국민포장을 받은 그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말한다.

"우리나라 규제의 가장 큰 문제는 법령에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열거하는 방식인 '포지티브 시스템(사전규제)' 입니다. 앞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정해놓고 나머지는 경제주체들이 알아서 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사후규제)' 으로 바뀌나가야 합니다."

황인학 본부장은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은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황 본부장은 20여 년 전 미국 유학시절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더글러스 노스(90) 교수의 강의를 잊지 못한다. 노스 교수에게서 "좋은 제도를 만드는 나라는 부강해질 수 있다"고 배운 그는 '제도는 경제인들이 반응하는 기회의 집합'이라는 정의를 신념으로 삼았다.

"규제개혁과 법 제도의 선진화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특히 법률, 의료, 교육 등 서비스산업 분야의 규제개혁이 이뤄져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 제고의 견인차가 됐으면 합니다."

박동일 서기관은 담당 업무가 바뀐 뒤에도 "규제개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행적으로 요구해온 인감증명 사무제도 폐지 기여

지식경제부 박동일 서기관

지식경제부 박동일(40) 서기관은 지난 2월부터 경기 과천시 정부종합청사가 아닌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신성장동력 발전전략'과 관련된 국무총리실 산업정책관실에 파견됐기 때문이다.

광화문으로 오기 전까지 그의 직함은 지식경제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1년 동안 규제개혁을 위해 일했던 박 서기관은 지난 7월 말 규제개혁 유공 공무원으로 포상받았다. "혼자 그 공을 다 인정받은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크다"는 그는 여러 관공서에서 관행적으로 요구해온 20개의 인감증명 사무제도를 폐지했다. 그동안 경우에 따라 인감증명이 꼭 필요하지 않은 때도 불필요하게 요구하다 보니 국민의 시간과 비용을 낭비돼 왔던 것이다.

박 서기관은 "여러 경로를 통해 문제 있는 규제가 발견되면 관련 부서에서 전문가 의견과 내부 토론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다"며 "인감증명 사무 폐지 역시 많은 사람들의 노력 끝에 얻은 소중한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서 느껴지는 조그만 어려움부터 풀어주는 노력이 선행된다면 국민에게 자연스레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수원 상류 입지규제 합리적으로 개선

환경부 김영훈 정책총괄과장

올해로 19년째 환경부에 몸담고 있는 김영훈(45) 정책총괄과장은 "환경부 업무상 각종 규제가 많다"고 말한다. 하지만 1990년대 고도성장 단계에서 규제를 통해 어느 정도 환경개선 효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다.

"'무조건 규제가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거의 규제가 현재 환경기술 발전과 환경수준 제고에 기여했듯이 현재의 규제도 미래 환경기술 발전과 환경수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롭게 다듬어야죠."

그의 이런 마인드 덕분에 지난 1년 반 동안 몸담았던 물환경정책과에서 규제개혁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동안 기업들에게 '마(魔)의 벽'으로 여겨졌던 상수원 상류 입지규제를 개선한 것이다.

그간 상수원 상류지역의 입지규제 방식은 원칙적으로 입지를 금지하거나 예외적으로 오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경우에만 입지가 허용됐다. 이런 상황에선 기업들의 입지 자체가 불가능했기에 기업 경쟁력의 한계로 작용해왔다. 김 과장은 해당지역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기한 요구사항을 수렴한 뒤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검토 끝에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지난 8월부터 녹색성장정책 총괄 업무를 담당하게 된 김 과장은 "어떤 정책이나 제도도 변화하지 않고 정체돼 있으면 국가 미래성장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우리나라 주요 먹을거리인 녹색산업 분야의 성장에 역행하는 제도나 규제가 있지는 않은지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G 글 · 김민지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지난 8월 정책총괄과로 자리를 옮긴 김영훈 과장은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작은 불편 모두 사라질 때까지…

소방방재청·중소기업청·농촌진흥청 등 규제개혁에 앞장

국민들은 규제개혁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국민의 작은 불편 하나하나가 잘못된 규제들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정부기관들은 불필요한 규제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며 규제개혁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소방방재청 | 규제개혁 위한 현장답사·맞짱토론 개최

"PC방을 처음 운영할 때 PC방 출입문 규정 때문에 정말 황당했어요. 어떤 법에서는 안이 훤히 보이는 유리문으로 만들라고 하고 어떤 법에서는 화재에 강한 철문으로 만들라고 하니 어느 쪽을 따라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지난 5월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5층 소방방재청 회의실은 작은 모의법정으로 변했다. 현장에서 미처 해결되지 못한 규제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제1회 맞짱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다.

이날 첫 번째 안건을 제기한 사람은 실제 PC방을 운영하면서 상충된 규정으로 고민해왔던 김명수(가명·45) 씨. 그는 PC방 등 다중이용업소의 방화문 개선 문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PC방 출입문은 안이 보이는 유리문으로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다중이용업소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PC방 출입문은 방화문으로 제작하도록 돼 있다. 이러다 보니 대개 PC방 주인들은 두 문 모두 설치하지만 한 쪽은 열어두고 거의 사용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날 재판장으로 나선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둘 중 하나는 개선될 수 있도록 반드시 고치겠다"고 약속했다.

소방방재청의 맞짱토론회는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신선한 아이디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날 토론회에선 4개의 안건을 대상으로 열띤 토론을 거쳐 2건은 규제완화 등의 결정이 내려졌다.

그동안 소방방재청은 매주 수요일을 '규제 현장 답사의 날'로 정해 다중이용업소, 정유공장, 주유소 등 현장을 방문해 업주 및 업체 관계자와 직접 면담을 통해 불편과 건의사항 등 의견을 귀담아 들어왔다.

지난 8월부터는 '규제개혁 알리미' 소식지를 제작해 소방방재청 블로그에서 소방방재 관련 규제 소식을 알리고 있다.

소방방재청 김수정 주무관은 "지속적인 현장답사와 매년 상·하반기 맞짱토론회를 통해 국민이 생활하는 현장에서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 블로그 blog.nema.go.kr

중소기업청 | 中企에 힘이 되는 '기업호민관실' 운영

"중소기업청 기업호민관실 출범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에 대한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불편을 해소해주는 호민관님 덕분에 살맛이 납니다."(아롱엘텍 대표이사

소방방재청은 지난 5월 처음으로 규제개혁을 위한 맞짱토론회를 열었다(사진 왼쪽).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7월 기업호민관실을 열어 중소기업인들에게 필요한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방방재청

중소기업청

농촌진흥청은 전 직원 2인 1조 제도 · 규제 개선 캠페인 등 다양한 노력을 펼쳐 9월 말 기준 75건에 대해 개선을 확정했다. 사진은 현장에서 직접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녹색기술현장지원단의 모습.

김진국)

지난 7월 말 기업인의 시각에서 중소기업과 관련된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중소기업청 기업호민관실이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지난 1년간 기업호민관실이 받은 중소기업 규제 관련 건의사항은 1천4백29건. 이 중 68퍼센트를 차지하는 9백76건이 해소됐다. 나머지 건의사항도 모두 검토 중이다.

이렇듯 중소기업인의 규제 애로사항을 귀담아 듣고 끝까지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기업호민관실 직원들은 평소 중소기업인들에게서 감사 인사가 담긴 e메일을 자주 받는다.

이민화 기업호민관을 주축으로 한 기업호민관실은 매주 월요일 '규제 애로 검토회의'를 연다. 이 회의에서는 접수된 후 검토 처리 중인 규제에 대해 금융, 기술, 산업안전 등 각 분야 담당자가 발표하며 서로 의견을 교환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그동안 1천 건이 넘는 규제개혁을 이뤄낼 수 있었다.

기업호민관실은 올해 총 2천5백건 이상의 규제 애로 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다. e메일과 뉴스레터는 물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위터(@korea_ombudsman)와 페이스북을 개설해 규제 애로사항을 언제든 들을 수 있는 다양한 창구를 마련했다. 이뿐만 아니라 인터넷 포털에서 기업 규제에 대한 의견을 듣고 대안을 찾는 집단지능인 '규제인(iN)'도 구축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 기업호민관실 homin.go.kr

농촌진흥청 | 2인 1조 규제 개선 캠페인으로 애로점 해결

농촌진흥청은 올해 1월 농촌 현장의 애로점과 법령 및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2인 1조 제도· 규제 개선 캠페인'을 벌였다. 농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된 요인이 바로 불합리한 제도나 규제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농업, 농촌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이런 제도나 규제를 없애기 위해 농촌진흥청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벌이면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 발굴에 힘썼다.

민승규 농촌진흥청장과 국립농업과학원장 등 4개 소속기관장들은 '현장 목소리 전화(1544-8572)'를 통해 매주 1시간씩 직접 농업인과 상담하며 개선할 규제 발굴에 힘썼고, '이동식 농업종합병원'이라 불리는 녹색기술현장지원단 및 영농현장모니터요원 약 1백60명은 현장에서 직접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수집했다. 또한 효율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이력추적 시스템'을 구축해 규제 발굴에서 개선 완료까지 단계별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농업, 농촌 사랑을 위한 세심한 배려를 통해 이미 지난 7월 말 개선할 규제 1천 건 발굴이란 당초 목표를 달성하고, 9월 말 기준으로 1천5백 건의 규제 과제 발굴과 함께 75건에 대해 개선을 확정했다.

대표적인 규제개혁 사례는 고추장, 된장 등 장류의 자가품질검사 주기 완화다. 검사 주기를 매월 1회 이상에서 6개월마다 1회 이상으로 개선함으로써 장류업체의 검사비용이 3억3천3백만원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 행정법무담당관실 손태익 주무관은 "개선이 확정된 75개 과제 중 9건이 약 9백억원의 경비절감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농업, 농촌, 농민의 애로사항과 규제개혁 대상 발굴을 위해 직접 움직이는 농촌진흥청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G

글 · 김민지 기자

농촌진흥청 전자민원 포털 minwon.rda.go.kr

농협은 다문화 결혼이민자들을 위해 53개 지역 농협에 '다문화 여성대학'을 개설했다. 충주농협의 다문화 여성대학에서 오카리나(점토나 도자기로 만든 취주 악기)를 배우고 있는 다문화가정 주부들.

다문화가족의 따스한 이웃 '농협'

모국방문 기회 마련 · 맞춤교육 통해 지역사회 일원 만들기 앞장

우리 주변에서 외국인을 보는 일은 이제 일상화됐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1백만명을 넘어서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순혈주의에 바탕을 둔 단일민족 국가였던 한국 사회가 이처럼 숨 고를 사이도 없이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다문화 시대를 열고 있는 곳이 농촌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농촌 총각 10명 가운데 4명이 국제결혼을 하는 현 추세에서도 알 수 있다. 그래서 농촌은 '코리안 드림'을 안고 이 땅을 밟은 피부색 다른 '새댁들'을 '이방인'이 아닌 '우리 이웃'으로 대하는 '통합'의 과제를 안고 있다.

〈농민신문〉이 2006년 탐사기획한 '다인종 시대… 더불어 살아가는 농촌' 기사에 따르면 2020년에 국제결혼을 한 외국인 여성과 그 자녀 수가 1백만명을 넘어서고, 18세 이하 청소년 중 혼혈은 7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농촌지역 인구 중 16퍼센트, 18세 이하 청소년의 무려 52퍼센트에 이르는 수치다. 결국 농촌의 미래가 이들에게 달려 있다는 논리가 가능하다. 이는 지난해 정부에서 전망한 것과도 다르지 않다.

특히 농촌의 경우 전체 여성 인구의 60퍼센트가 60대 이상이고, 39세 이하는 3퍼센트도 되지 않을 만큼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의 75퍼센트가 35세 미만이라는 점은 여러모로 희망이다. 나아가 '저출산'에 익숙한 지금의 우리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녀를 많이 낳고 있다는 점도 농촌 발전에는 긍정적 요인이다.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 농촌 발전에 긍정적 요인

하지만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정적인 데다 인권이나 처우 등에서도 아직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선진국의 경우, 외국인이 차지하는 인구 비중이 4퍼센트를 넘어서면 사회문제가 발생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처럼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도 이러한 우려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브로커 개입 등으로 국제결혼에 드는 비용이 1천5백만원 안팎으로 치솟고, 신상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 결혼 성사에만 급급한 나머지 야반도주를 하거나 이혼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제결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게 사실이다.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현재, 우리만을 고집하며 벽을 쌓는 것은 다원화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들을 우리 이웃으로 보고 인종과 국가에 상관없이 평등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따뜻함과 배려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농협은 경제적인 사정으로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농촌지역 여성 결혼이민자에게 모국방문 기회를 마련해 한국 사회에 좀 더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희망을 열어주고 있다. 2007년 2백 가정 7백93명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6백22가정 2천4백41명에게 혜택을 제공했다.

모국방문을 경험한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농협의 배려로 친정을 다녀오면서 농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오래전에 결혼을 했거나 형편이 어려운 가정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필리핀,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미얀마 등 13개 나라 친정에 보내 '함께의 가치'를 실현했다.

13개 나라 친정에 보내 '함께의 가치' 실현

'코리안 드림'을 품고 온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농업 노동력이 부족한 농촌에서 농업 후계 인력으로서의 전망도 밝다. 그러나 이들의 높은 학습욕구에도 불구하고 가사나 양육 등의 문제뿐 아니라 바깥출입을 꺼리는 가족의 반대 등으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서지 못하고 있다.

농협은 이에 거리 접근성의 강점을 내세워 2005년부터 농협 협력조직인 고향주부모임과 농가주부모임의 회원과 여성 결혼이민자 간에 '친정부모 인연맺기' 사업을 펼쳐 2009년까지 7백50쌍을 맺었다.

이를 발판으로 농협은 2008년부터 올해까지 '다문화 여성대학'을 열어 53개 지역농협에서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수요자 특성에 맞는 맞춤교육을 실시해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이 되는 데에도 힘을 보탰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이민 여성농업인 1천여 명에게 일대일 맞춤 농업교육을 실시해 농촌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서도록 돕고 있다.

농협은 다문화가족을 우리 사회의 주체로 인식하는 데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법무부와 함께 10개 농협에서 2백52명을 대상으로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여성 결혼이민자가 자신을 이 사회의 객체가 아닌 중

농협중앙회는 다문화가정이 농촌 문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올해 4월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이 농촌 다문화가족에게 모국방문 항공권을 전달하고 있다.

요한 주체임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한글과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교육 수준을 높이고 있다.

실제 강원 평창농협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15주에 걸친 '기초농업교육'에 참가한 27명의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고향주부모임 회원과 '모녀결연'의 정을 맺어 교육 지원은 물론 자녀 뒷바라지까지 해주고 있다.

농협의 관심과 배려로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교육을 더 연장해줄 것을 호소할 정도다. 농협은 앞으로도 이들이 농업, 농촌의 당당한 주체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G

글 · 이중훈(농협중앙회 홍보팀장)

농협, 외국 이름 개명 무료 지원

"한국 이름 새로 생겼어요"

필리핀 출신으로 1999년 전남 곡성군에 시집온 '아우라 아우리 아렐 아바체' 씨는 본명이 너무 길어 불편함을 겪었다. 자녀들도 자신의 이름 때문에 또래 학생들에게 놀림감이 됐다. 이에 그는 2007년 10월 농협 곡성군지부를 통해 성·본 창설 및 개명허가 법률구조를 신청해 본을 '백곡'으로 한 이 씨 성으로 '이미선'이라는 한국 이름을 얻게 됐다.

이처럼 농협이 어려운 이름으로 애로를 겪는 결혼이민자들의 고민을 덜어주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공동으로 결혼이민자 중 귀화 농업인을 대상으로 성과 본을 만들고 개명허가 신청을 해주는 무료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

신청 대상은 국제결혼 후 국내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출입국관리소에 귀화 신청을 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다. 개명을 원하면 개명허가신청서 등을 작성해 거주지 지역 농협 또는 농협 시군지부에 무료 법률구조를 신청하면 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개명허가 구조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은 2주~3개월 내에 결정문을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그러면 신청자는 1개월 이내에 구청 또는 면사무소에 호적 정정을 신청해 3, 4일 후 새로운 이름을 정식으로 가질 수 있다.

농협 준법감시실 ☎ 02-2080-5531

맞춤형 나눔 봉사로 무한 사랑 실천

지역사회·일반인과 함께 자사 특성 살린 봉사활동 펼쳐

무조건적이고 형식적이거나 단순히 시혜적 차원에 머무르는 나눔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 이젠 기업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지역사회, 일반인들과 함께 자사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나눔활동을 펼치는 게 대세다.

상생전략으로 중소기업 성장 돕는다

지난 4월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에너지 본사 35층에 중소기업 대표 20여 명이 모였다. 이들 회사는 수처리와 해수 담수화, 폐자원 에너지화, 토양 정화 등 녹색환경산업 분야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다. SK에너지는 이날 이들과 '대·중소기업 그린 상생협력'을 맺었다.

기술은 있지만 자체적으로 판로를 찾지 못해 글로벌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SK에너지가 자사의 연구개발(R&D), 마케팅 능력과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돕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 차원의 저탄소 녹색성장에도 한몫하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SK에너지 서영준 부장은 "핵심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다양한 사업 경험을 가진 SK에너지가 협력해 환경산업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 나가는 상생전략"이라고 말했다.

SK에너지가 추진하는 중소기업과의 상생전략은 단순한 시혜적 차원을 넘어 중소기업의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동 기술개발과 상용화, 공정 개선, 비용 절감뿐 아니라 상용화 기술의 국내외 진출 등을 돕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일하는 기업 지원·보육교사 등 일자리 창출

SK에너지는 협력사인 월드브리지산업과 공동으로 저장탱크에서 증발되는 석유를 최소화하는 기술을 개선해 연간 5억원의 비용을 절감했다. 월드브리지산업은 해외 수출을 통해 70억~80억원 정도의 신규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다른 협력사인 엔바이론소프트와는 석·박사급 인력으로 구성된 연구팀을 꾸려 공동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SK에너지 관계자는 "이 같은 협력을 통해 구축한 사업 간 협동 및 상생모델 구축은 전 세계적으로도 획기적이라고 할 만큼 혁신적인 고난도의 기술적 협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사회공헌활동도 활발하다. 보건복지

SK에너지

SK에너지 구자영 사장(가운데)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소외계층에 전달할 김치를 담그고 있다.

대림산업

대림산업 직원들은 2005년부터 한국해비타트와 손잡고 '사랑의 집짓기' 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 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회공헌기업 1호인 '고마운 손'은 SK에너지의 지원 아래 북한이탈주민과 장애인 등이 일하는 핸드백·지갑 제조업체다. 지난해 첫 시작 때는 직원이 5명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57명으로 늘었다.

SK에너지는 또 저소득층의 자립 자활을 위해 지역사회 소외아동을 위한 교사와 저소득층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등 2005년부터 3년간 1천9백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글 · 이성훈(조선일보 산업부 기자)

대림산업

구슬땀 흘리며 사랑의 집짓기

지난 9월 10일 경기 남양주시 송천지역아동센터. 비 오는 궂은 날씨에도 대림산업 직원 30여 명이 찾아왔다. 이들은 30여 명의 어린이가 생활하는 단층 건물의 낡은 도배와 장판을 깔끔하게 단장하고 주변을 청소하느라 하루 종일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한 직원은 "모처럼 즐거운 땀을 흘렸다"고 기뻐했다.

올해로 창립 71주년을 맞은 대림산업은 '큰 숲 아래 모두 함께 쉬는 마음으로 행복을 나누자'는 모토 아래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뛰어들었다. 대림산업은 행복나눔, 소망나눔, 문화나눔, 사랑나눔, 맑음나눔 등 5대 나눔 활동을 목표로 정했다. 일회성 활동보다는 지역과 밀착해 어려운 이웃에게 꾸준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행복나눔 운동의 경우 임직원이 직접 참여해 무주택 서민에게 집을 지어주고 있다. 2005년부터 시작한 '사랑의 집짓기' 활동이다.

지난해부터는 서울과 근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시설 개선사업도 벌이고 있다. 올해는 지역아동센터 주택 25가구 등 30여 가구를 선정해 낡은 집을 고쳐주고 있다. 지난 8월 25일엔 인천시와도 사랑의 집 고치기 협약을 체결했다.

전국 각 현장에 결성된 '한숲봉사대원'은 사랑나눔 운동의 첨병으로 소외된 이웃의 손발 노릇을 하고 있다. 대림산업 배선용 상무는 "지난해에는 사내 10개 동호회가 복지시설을 찾아 성금과 지원품을 전달했다"면서 "사랑나눔을 신입사원의 필수 교육과정으로 정할 만큼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맑음나눔' 봉사대 조직… 1山·1川·1거리 가꾸기 진행

사랑나눔의 일환으로 지난 5월엔 서울 영등포구 노인종합복지관과 사랑나눔 프로젝트 'Better Life for U' 협약을 맺었다. 영등포구 관내 무의탁 저소득 홀몸노인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1회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기로 한 것. 홀몸노인의 주거환경 개선사업(도배 및 장판 교체)을 주로 진행하며 물품후원, 말벗 지원을 통해 정서적 안정도 돕고 있다.

대림산업은 본사와 전국 현장 직원을 대상으로 '맑음나눔 봉사대'도 조직해 전국 10개 권역에서 '1산(山), 1천(川), 1거리 가꾸기'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올해엔 4차례에 걸쳐 2천여 명의 임직원이 참여해 환경정화 활동을 벌였다.

글 · 유하룡(조선일보 산업부 기자)

현대제철

지역과 함께하는 따뜻한 기업문화

지난 9월 14일 현대제철 인천공장 직원들이 회사 인근 전통시장인 현대시장을 찾았다. 이들은 추석 연휴를 맞아 지역 내 홀몸노인 등 소외계층에게 전달할 쌀을 구매했다.

지역 특산품인 '강화 쌀'을 사고 지급한 것은 전통시장 상품권. 현대제철은 전통시장 상품권 8천5백만원어치를 단체로 구매해 상품을 구매했고, 지역 주민과 복지기관에 직접 상품권을 전달했다. 포항공장 직원 2백여 명은 죽도시장에서 상품권을 이용해 제수용품을 구입하기도 했다.

현대제철 김경식 이사는 "상품권 구매로 시장도 살리고 어려운 이웃도 돕는 일석이조 효과를 봤다"고 말했다. 현대제철 사회공헌활동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 시민단체, 일반인과 함께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집수리 활동은 회사 임직원뿐 아니라 대학생,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지난해 참가 인원은 모두 1천3백명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해피 예스 대학생 봉사단'을 만들어 농촌학교 시설 개선과 일일교사 활동 등을 진행했다. 올해 2기 대학생 봉사단 1백명은 지난 7월 한국해비타트 회원, 현대제철 직원과 함께 소년소녀가장과 홀몸노인 집의 도배와 장판 교체 등을 해주었다.

인천과 포항, 당진 등 사업장 인근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환경교실도 운영한다. 매월 1회 환경을 주제로 강의와 실습을 진행한다. 기부활동도 활발하다.

현대제철은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매월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떼어내 기부금을 만들고 그 재원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회사는 임직원이 기부한 금액만큼을 출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2005년 첫 시작 이후 참가자가 늘어 지금은 전 직원의 37퍼센트가 기부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급여에서 기부금 만들어 소외계층 공익사업 지원

현대제철은 임직원의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 2007년부터 임직원 봉사활동 실적을 팀 평가에 반영하는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 평가 시스템에 따라 개인별로 연간 32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팀별로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기 위해 스킨스쿠버 다이빙으로 바닷속 청소를 하는 등 직접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하기도 한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2008년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현대제철

현대제철 대학생 봉사단인 '해피 예스'가 포항지역 소외계층의 낡은 주택 담장을 새로 칠하고 있다.

GS건설

지난해 GS건설이 개최한 지역 저소득층 어린이 초청행사에서 GS건설 직원과 어린이가 함께 케이크를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회책임위원회를 발족해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 시스템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글 · 이성훈(조선일보 산업부 기자)

맞춤형 릴레이 봉사로 나눔문화 확산

사회복지 제도가 발달해 있는 유럽에서는 정부가 설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수혜자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수혜자가 원하는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맞춤형 사회복지 시스템'이 큰 흐름이 되고 있다.

GS건설이 시행하는 사회공헌 활동은 유럽의 사회복지 제도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GS건설은 국내는 물론 해외 약 20개국에 퍼져 있는 지사 등에서 맞춤형 릴레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GS건설은 2006년 2월부터 매칭 그랜트 방식의 '자이 사랑 나눔단'을 발족하고 현장과 본사 직원을 총 1백23개 조직으로 구성해 매년 4백여 회의 맞춤형 릴레이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각 지역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여기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얼마 전 태풍과 폭우로 큰 피해가 발생하자 GS건설의 맞춤형 봉사활동은 큰 효과를 발휘했다. 서울 강남구 세곡동 반고개 마을에서 1백여 가구가 침수돼 도움을 요청하자 인근에 있는 GS건설 청담자이 건설 현장 직원 10여 명이 출동했다. 직원들은 20가구의 장판을 교체해주고, 흙탕물을 뒤집어쓴 가구와 살림살이를 끄집어내 모두 씻어내고 정리하는 순발력을 보여줬다.

지난 4월에는 허명수 GS건설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안전부 주관의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지원키로 협약을 체결하고 홀몸노인 등 저소득층의 집을 수리해주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GS건설은 남촌재단, 농협중앙회 등과 함께 저소득층 5백70여 가구에 대한 집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집 짓는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건설사의 역량을 사회봉사활동에 접목한 것이다.

어려운 이웃에 '희망의 집수리 사업' 실천

허 사장은 "GS건설은 '희망의 집수리 사업'의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나아가 우리 사회 전반에 사랑나눔의 문화가 확산되는 데 기여하겠다"며 "함께하는 나눔의 문화가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GS건설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회공헌활동을 벌인 덕에 GS건설은 지난 9월 초 다우존스 지속경영가능지수(DJSI) 월드 지수에 편입됐다. 이 지수는 미국의 다우존스 인덱스와 스위스의 지속가능경영평가사인 샘(SAM)이 공동으로 전 세계 상위 2천5백여 개 기업의 재무 성과와 사회공헌, 윤리경영 등을 평가해 글로벌 표준기업으로 선별하는 지수다. GS건설의 상생·나눔경영이 글로벌 경영 방향과 일치한다는 인증을 받은 셈이다. G

글 · 이석우(조선일보 산업부 기자)

‘서민 스타’ 폴 포츠, 희망을 노래하다

소년원 학생 위한 희망 나눔 공연… “꿈 포기하지 말길”

‘서민 스타’ ‘꿈의 아이콘’이라 불리는 오페라 가수 폴 포츠가 자신의 세 번째 음반 홍보를 위해 우리나라를 찾았다. 따돌림, 가난, 병마 등 온갖 시련을 딛고 영국의 스타 발굴 오디션 TV 프로그램을 통해 휴대전화 판매원에서 세계적인 가수로 거듭난 그는 6박7일의 짧은 한국 방문 기간 동안 소년원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불어넣는 등 강렬한 여운을 남겼다.

10월 18일 서울 을지로 신세계백화점에서 3집 앨범 쇼케이스를 가진 폴 포츠가 가장 즐겨 부르는 노래라는 영화 〈대부〉의 삽입곡 ‘Parla piu piano’를 열창하고 있다.

10월 19일 오후 2시 경기 의왕시 서울소년원 대강당. 한 남자가 무대에 오르자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그는 2007년 영국 ITV의 오디션 프로그램 ‘브리튼스 갓 탤런트(Britain’s got tallent)’에서 우승한 후 전 세계적으로 5백만 장 이상의 음반 판매고를 올린 오페라 가수 폴 포츠(40)였다.

자신이 좋아하는 주옥같은 영화음악을 노래한 세 번째 음반 프로모션을 위해 내한한 그는 이날 소년원 학생들을 위한 희망 나눔 공연을 열고 ‘Se(시네마천국)’ ‘Parla piu piano(대부)’ 등을 열창했다. 인생의 역경을 딛고 꿈을 이뤄낸 긍정의 에너지도 학생들에게 전했다.

소년원 학교에서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2011학년도 서울예술종합대학 실용음악과에 합격한 박모(19) 양은 “인터넷으로 폴 포츠의 모습을 보고 팬이 됐는데 직접 공연을 볼 수 있어 행복했다. 앞으로 꿈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넘어지더라

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연이 끝난 후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학생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안긴 그를 법무부 청소년선도 명예대사로 위촉했다. 이날 공연은 객석을 메운 4백여 명의 관객은 물론 폴 포츠에게도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됐다.

"지난해에도 서울광장에서 공연을 하면서 한국인의 역동적인 모습, 열광적인 반응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3년 전만 해도 한국은 휴대전화기를 잘 만드는 나라로만 알았는데 직접 와서 보니 눈부시게 발전했더라고요."

2008년과 2009년에 이어 올해로 세 번째 우리나라를 찾은 폴 포츠는 "한국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고 운을 떼자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한국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장소로는 "2008년 방문한 대구광역시의 한 고아원"을 떠올렸다.

"한국에서 가장 배우고 싶은 건 한국말이에요. 불고기, 갈비, 김치 같은 한국음식을 좋아하는데 말을 배우면 주문도, 팬들과의 의사소통도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한국말 배워 한국음식 주문 · 팬들과 의사소통하고파"

그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도 관심을 보이며 "이번 정상회의가 한국의 발전상을 세계만방에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덕담을 건넸다.

육중하지만 슈트가 잘 어울리는 듬직한 체구에 초롱초롱한 갈색 눈동자, 말끝마다 입가에 번지는 환한 미소. 그의 모습 어디에서도 그늘진 구석은 찾아볼 수 없었다. 어눌한 말투와 볼품없는 외모, 가난한 집안형편 등으로 어릴 적부터 숱한 따돌림과 놀림에 시달리며 고통의 나날을 보냈던 과거의 상처는 모두 치유된 듯했다.

그의 가장 큰 콤플렉스였던 일그러진 치열도 한 치과의사 팬의 도움으로 가지런해졌다. 그는 14세 때 학교에서 넘어져 앞니가 깨지고 치골이 크게 흔들렸지만 치료비가 없어 방치할 수밖에 없었다. 그 때문에 치아가 제멋대로 자라 학창시절 친구들로부터 '프랑켄슈타인'이라는 놀림까지 받았다. 외모에 한창 민감한 사춘기에 마음을 다친 그는 밤마다 베개를 눈물로 적셨고, 계단에서 굴러 자해하거나 자살을 생각한 적도 있다.

하지만 이제는 못난 치아를 보여주기 싫어 자신의 결혼식에서조차 웃지 못하던 예전의 그가 아니다. 웃기면 치아가 다 드러나도록 큰 소리로 웃고, 아픈 과거도 스스럼없이 꺼내 보일 수 있을 만큼 의연해졌다.

이러한 변화는 모두 지난 3년여의 시간이 그에게 가져다준 선물이다. 그는 "'브리튼스 갓 탤런트'에서 우승한 후 오랜 방황을 끝내고 나 자신과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게 됐다"며 "가

폴 포츠는 10월 19일 경기 의왕시 서울소년원을 방문해 소년원 학생들을 위한 희망 나눔 공연을 펼쳤다.

수에 도전하는 마지막 무대로 생각했던 그 프로그램을 통해 꿈을 이뤘기에 매일 매 순간 감사하며 살고 있다"고 했다.

막연하게나마 그가 오페라 가수의 꿈을 키우기 시작한 것은 11세 때 클래식음악에 심취하면서부터다. 어린 시절 외롭고 지칠 때마다 음악과 노래를 통해 삶의 위안을 얻은 그는 교회와 학교의 합창단원으로 활동하며 자신의 재능과 꿈을 키워나갔다. 꿈을 향한 열망은 대학을 졸업하고 휴대전화기 판매원으로 일하면서도 이어져 2001년과 2002년 여름 이탈리아에서 오페라 레슨을 받기에 이른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더욱 간절해진 그의 꿈은 교통사고와 종양수술로 위기를 맞는다. 당시 의사에게서 "영원히 노래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은 것. 그는 '브리튼스 갓 탤런트' 오디션 참가자 모집 공고를 보고서도 마음을 정하지 못해 동전 던지기에 운명을 건다. 그렇게 운명에 이끌려 오디션에 참가한 그는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의 대표곡인 '네순 도르마(Nessun Dorma)'로 전 세계 시청자를 감동시키며 우승까지 거머쥔다.

그날 이후 그의 이름 앞에는 인생역전에 성공한 '서민 스타' '꿈의 아이콘'이라는 애칭이 따라다닌다. 또한 '제2의 폴 포츠'를 꿈꾸는 많은 이들이 생겨났다.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한국에 머문 폴 포츠는 인터뷰를 마치며 그들을 위한 조언을 잊지 않았다.

"꿈은 노력을 가능하게 하고, 노력은 꿈을 가능하게 합니다. 꿈을 얼마나 이뤘느냐보다는 어떻게 이뤄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초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국 시인 루드야드 키플링의 시 'If'의 한 구절처럼 '만일 당신이 인생의 길에서 성공과 실패를 만나더라도 그 둘을 똑같이 대할 수 있다면' 매일 조금씩 꿈에 가까이 다가서게 될 겁니다." G

글 · 김지영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산청군 단성면 남사마을의 가을.
맨 왼쪽 기와집은 충무공이 하룻밤 묵었다는 박호원의 옛집이다.

경남 산청~하동 이순신 백의종군로

4백 년 전 충무공 발길 따라 위국충정의 숨결 느끼다

나는 정유년 4월 초하룻날 서울 의금부에서 풀려났다. 내가 받은 문초의 내용은 무의미했다.

위관들의 심문은 결국 아무것도 묻고 있지 않았다. …(중략)… 나는 장독(杖毒)으로 쑤시는 허리를 시골 아전들의 행랑방 구들에 지져가며 남쪽으로 내려와 한 달 만에 순천 권율(權慄) 도원수부에 당도했다. 내 백의종군(白衣從軍)의 시작이었다.

김훈의 소설 〈칼의 노래〉의 일부다. 소설 속의 '나'는 물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다. 충무공은 정유년(1597년) 2월 26일(이하 모두 음력) 한산도에서 체포돼 한양으로 압송됐다. 군공(軍功)을 날조해서 임금을 기만하고, 왜군을 적극적으로 공격하지 않았다는 죄목이었다. 그가 맡고 있던 삼도수군통제사 자리는 곧바로 원균에게 넘겨졌다.

한양으로 압송된 충무공은 의금부에 투옥된 뒤 한 달 가까이 가혹한 문초(問招)를 겪었다. 하지만 조정은 그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고, 결국 유성룡과 정탁의 도움으로 무고함이 밝혀졌다.

4월 1일에 사면된 충무공은 도원수 권율 휘하에서의 백의종군을 명받고 남행(南行)길에 올랐다. 도중에 고향인 충남 아산에서 모친상을 치르기도 했던 충무공은 공주→여산→전주→임실→남원→곡성을 거쳐 5월 26일에 지금의 경남 하동군 악양 땅에 도착했다.

백의종군로(白衣從軍路)는 이순신 장군이 사면된 때부터 그해 8월 3일 삼도수군통제사의 재수임 교지를 받을 때까지 넉 달 동안의 여정(旅程)이다.

현재 경상남도는 백의종군로 가운데 하동~사천~진주~산청~합천 등을 경유하는 1백61.5킬로미터 구간을 문화와 역사가 있는 테마관광자원으로 개발 중이다. 그리고 산청군 단성면 남사마을과 하동군 고전면 주성마을 사이의 42킬로미터에 이르는 백의종군로 구간은 지난 5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생태 탐방로 중 하나로 선정됐다.

하지만 아직은 전체 코스의 정비가 끝나지 않았다. 더욱이 찻길과 겹치는 구간이 많아서 18킬로미터의 전체 구간을 도보로만 탐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양경산 정상에 오르면 하동읍성 일대가 한눈에

산청군 단성면 남사마을~길리마을~금만마을 간의 4.8킬로미터, 하동군 옥종면 문암리의 문암정~옥종면 소재지 간의 강둑길 5킬로미터, 하동군 양보면 장암리 장암교~중단이재~주성마을 간의 4.4킬로미터 구간이 찻길을 피해 비교적 안전하게 걸을 수 있다.

그리고 충무공의 백의종군 행로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려면 하동에서부터 걷기 시작해 산청 남사마을에서 끝내는 것이 좋다.

몇 그루의 노송이 서 있는 산청군 금만마을의 고즈넉한 동구 풍경. 여기서 남사마을에 이르는 4.8킬로미터의 산길에서는 다양한 풍경을 즐길 수 있다.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주성마을에는 하동읍성(사적 제453호)이 있다. 백의종군로에 오른 충무공은 하동 악양과 두치에서 하룻밤씩 묵은 뒤 5월 28일 하동읍성에 당도했다.

임진왜란 당시 하동현청은 오늘날의 고전면 고하리에 위치해 있었다. 고하리는 통일신라시대 이전부터 임진왜란 이후인 1703년까지 하동의 행정 중심지였다. 1417년(조선 태종 17년)에 처음 축조된 하동읍성은 외성(토성)과 내성(석성)의 이중구조를 갖췄다.

하지만 하동현청이 지금의 하동 읍내로 옮겨진 이후 여태까지 방치됐다가 최근 들어 성벽 복원공사와 탐방로 개설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양경산성' '고현성'으로도 불리는 하동읍성의 맨 꼭대기인 양경산 정상(해발 1백49미터)에 올라서면 하동읍성 일대의 산자락과 들녘이 한눈에 들어온다. 충무공은 이곳에서 이틀 동안 머무르며 몸을 추스른 뒤 다시 길을 나섰다.

하동읍성이 있는 고하리 주성마을에서 소여곡소류지(저수지)를 거치고 중간이재를 넘어 장암교까지는 4.4킬로미터의 산길 구간이 개설돼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정표도 거의 없는 데다 인적조차 뜸해 초행자가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감안할 때 하동읍성에서 다음 목적지인 옛 청수역(지금의 옥종면 정수마을)까지 25킬로미터에 이르는 구간은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좋다.

6월 1일 이른 아침에 하동현청을 떠난 충무공은 빗길을 걸어 청수역에 도착해 말을 쉬게 했다. 청수역이 자리했던 정수마을에서 2킬로미터쯤 떨어진 옥종면 청룡리에는 충무공이 유숙했던 이희만과 이홍훈의 집이 남아 있다.

정유년 7월 18일 합천의 도원수 진에서 원균의 패전 소식을 들은 충무공은 권율 장군의 명을 받아 전황을 살피러 남쪽으로 길을 떠났다. 7월 20일 옥종면 청룡리에 도착한 충무공은 이희만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고, 이희만의 조카인 이홍훈의 집에서는 나흘간 머물며 왜적을 물리칠 궁리에 몰두했다.

청룡리~문암정, 호젓한 강둑길 걸으며 정취 만끽

옥종면 소재지인 청룡리부터는 위험한 찻길 대신에 호젓한 강둑길을 걸을 수 있다. 청룡리에서 문암리 덕천강변의 문암정까지 5킬로미터에 이르는 길은 시원한 강둑을 따라 이어진다.

하지만 겨울에는 칼바람을 감내해야 하는 구간이기도 하다. 강정(江亭)으로도 불리는 문암정은 덕천강변의 우뚝한 절벽 위에 자리 잡았다. 상쾌한 강바람은 물론이고, 강 건너편의 진주시 수곡면 원계마을까지 훤히 조망을 누릴 수 있는 정자다.

문암정에서 약 1킬로미터 거리에 위치한 원계마을에는 충무공이 7월 27일부터 8월 3일까지 머물렀던 손경례의 집이

탐방객들이 고현성, 양경산성으로도 불리는 하동읍성의 허물어진 성벽을 따라 걷고 있다.

있다. 여기서 충무공은 전황을 살피기 위해 함께 길을 나선 군사들을 마을의 들녘에서 훈련시키기도 했다.

그는 〈난중일기〉에서 "냇가로 나가 군사를 점고하고 말을 달렸는데 (권율) 원수가 보낸 군대는 모두 말도 없고 활에 화살도 없으니 소용없었다"며 당시 상황을 기록으로 남겼다. 그때 군사를 훈련했던 '진배미'는 오늘날 대단위 비닐하우스단지로 탈바꿈했다.

삼도수군통제사로 재수임받은 손경례의 집

손경례의 집은 이순신 장군의 백의종군 유적지 가운데 가장 기억될 만한 역사 현장이다. 8월 3일 삼도수군통제사로 다시 임명한다는 선조 임금의 교지를 받았던 곳이기 때문이다. 그에 앞서 7월 15, 16일의 칠천량해전에서 조선 수군이 대패하고 원균이 전사하자 선조는 크게 놀랐다.

그래서 충무공을 삼도수군통제사로 재임명한다는 교서를 급히 7월 22일에 내렸다. 그로부터 열흘 뒤인 8월 3일 손경례의 집에서 재수임 교서를 받은 충무공은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라는 상소를 올린 뒤 서둘러 임지로 떠났다. 이로써 충무공의 백의종군 행로도 끝나게 됐다.

오늘날 손경례의 집에는 1965년에 세웠다는 '삼도수군통제사재수임기념비'만 덩그러니 남아 주인 떠난 빈집을 지키고 있다. 마을 입구에는 생전의 충무공을 지켜봤을 수령 6백년의 느티나무 고목이 서 있다.

원계마을에서 드넓은 강변 들녘과 나직한 산자락을 좌우에 두고 북쪽으로 4.5킬로미터쯤 달리면 금만마을 입구에 도착한다. 여기서 감나무골, 송골재, 길리마을, 길리재, 남사저(저수지), 천삼포 등을 거쳐 산청군 단성면 남사마을로 넘어가는 4.8킬로미터의 산길이 시작된다.

문화생태 탐방로로 선정된 백의종군로 구간 가운데 가장 마음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구간이다. 시멘트로 포장된 마을 진입로와 푹신한 흙바닥의 오솔길과 구불구불한 논두렁길이 뒤섞인 이 구간에서는 다양한 정취와 풍경을 맛볼 수 있다.

흔히 '남사예담촌'으로 불리는 남사마을은 고풍스런 한옥 마을이다. 등록문화재 제281호로 지정된 돌담이 3.2킬로미

터나 이어지고 이씨고가, 최씨고가, 사양정사, 분양종택, 이사재 등의 고래등 같은 고택들이 즐비하다.

그중 이사재는 백의종군로에 오른 충무공이 하룻밤을 묵었던 박호원 집의 재실이다. 정유년 6월 1일 아침 일찍 하동읍성을 출발한 충무공은 청수역에서 잠시 말을 쉬게 한 뒤 다시 길을 재촉해 해질 무렵 남사마을에 도착했다. 충무공은 박호원의 농막에서 불편하게 하룻밤을 보낸 뒤 아침 일찍 길을 나서 30여 리쯤 떨어진 단계천변에서 아침밥을 지어 먹었다.

이처럼 이순신 장군의 백의종군로를 자분자분 걷노라면, 자신도 모르게 4백여 년 전의 아득한 세월을 거슬러 시간여행을 떠나온 듯한 느낌이 든다. 그 길에서 마주치는 충무공의 자취는 가늠하기 힘들 만큼 희미하지만, 죽는 순간까지도 위국충정(爲國忠情)이 가득했던 충무공의 숨결과 정신은 어디서나 또렷하게 느껴진다. G

글과 사진 · 양영훈(여행작가)

코스 정보

단일 코스 길이 42킬로미터

문화생태 탐방로로 신청한 백의종군로 구간의 거리는 18킬로미터인데, 이는 자동차 이용이 불가피한 하동읍성과 청수역 사이의 24킬로미터 구간이 누락된 거리라고 한다. 4, 5시간 소요(도보와 자동차 이용 병행).

산청군 단성면 남사마을 → 산길(남사마을~남사제~길리마을~금만마을) 구간 → 진주시 수곡면 원계마을 삼거리 → 원계마을(손경례가, 진배미) → 원계마을 삼거리 → 하동군 옥종면 문암리(문암정) → 옥종면 정수리(청수역) → 산길(양보면 장암리 장암교~중단이재~양경산성~주성마을) 구간

문의 경남도청 관광진흥과 역사문화담당 ☎ 055-211-4882
산청군청 문화관광과 ☎ 055-970-6421
하동군청 문화관광과 ☎ 055-880-2375

숙박

남사마을 고택 중 하나인 사양정사(055-973-6052)에서는 숙박 체험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미리 주문하면 정갈하고 맛깔스러운 가정식 백반도 맛볼 수 있다. 남사마을에는 이 밖에도 예담원(055-972-7107), 냇가집(055-972-7107), 뒷동산집(055-972-7107) 등의 민박집이 있고, 카페를 겸한 토토펜션(055-972-0187)도 있다. 옛날 청수역이 자리했던 하동군 옥종면 정수리에는 옥종불소유황천모텔(055-884-5950)이 있다.

맛집

남사마을 내 남사예담촌전통찻집(055-972-0424)은 전통차 이외에도 시골국수, 녹차수제비, 해물파전 등의 음식을 맛깔스럽게 내놓는다. 각종 민예품으로 고풍스럽게 장식된 실내 인테리어도 인상적이다. 이 밖에 산청군 단성면 창촌리의 구만횟집(055-972-5021)과 청기와횟집(055-972-5022)은 메기매운탕, 피라미조림 등의 민물고기 요리 전문점이다. 그리고 하동 옥종불소유황천 단지 내의 산촌식당(055-882-2655)은 산채비빔밥과 콩비지찌개가 일품이며, 옥종면 면소재지에 위치한 우리한우(불고기 정식 · 055-882-1900)는 하동군이 추천하는 맛집이다.

가는 길

통영대전고속도로 단성나들목(20번 국도 · 지리산 방면) → 남사예담촌

진주시 수곡면 원계마을의 손경례가.
충무공이 삼도수군통제사 재수임 교지를 받은 곳이다.

“의생명공학 인재 양성에 도움 되고파”

용돈 아껴 장학금 주는 박정극 동국대 의생명공학과 교수

“퇴임하면서 후배들을 위해 장학금을 기부하는 선배 교수들을 보면서 대단하다는 감탄과 함께 ‘나도 그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학금 기부는 정년퇴임 전에 꼭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에 남은 기간만이라도 용돈을 조금씩 절약해서 장학금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박정극(59) 동국대 의생명공학과 교수는 매달 1백만원씩, 정년퇴임을 기준으로 해 앞으로 6년간 총 7천2백만원을 모아 대학에 기부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 9월 28일 오영교 동국대 총장에게 장학금 기부 약정서를 제출했다. 평소 장학사업에 관심이 많아 10년 전부터 소규모 장학금이나 학교발전기금을 기부해오긴 했지만 이처럼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장학금 기부를 하게 된 것은 처음이다. 정년퇴임을 6년 앞두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한 결정이다.

조영철 기자

박 교수는 자가용 대신 지하철로 출퇴근하고 술자리나 모임을 줄이는 등 용돈을 아껴 장학금을 마련한다.

오영교 총장은 “기부에 뜻이 있어도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인지상정인데 박 교수가 평소 학문에 대한 열정과 후학에 대한 사랑을 이처럼 몸소 실천하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박 교수의 솔선수범이야말로 여러 동문과 외부인들에게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측은 박 교수의 기부 취지를 살려 매년 4명의 학생에게 3백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6년간 총 7천2백만원 대학에 기부 예정

박 교수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의생명공학 분야에서 손꼽히는 전문가다. 그가 이끄는 연구팀이 개발한 ‘급성 간질환 환자를 위한 생인공간’은 현재 삼성병원에서 임상실험 중이다.

이 밖에도 생인공피부, 생인공각막, 생인공뼈, 생인공모낭 등 세포를 이용한 다양한 치료법을 개발해 임상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등 주목할 만한 연구성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아시아 13개국 총 1천30명의 회원이 가입한 ‘아시아생물공학연합체(AFOB · Asian Federation of Biotechnology)’ 사무총장으로 AFOB의 본부를 인천 송도에 유치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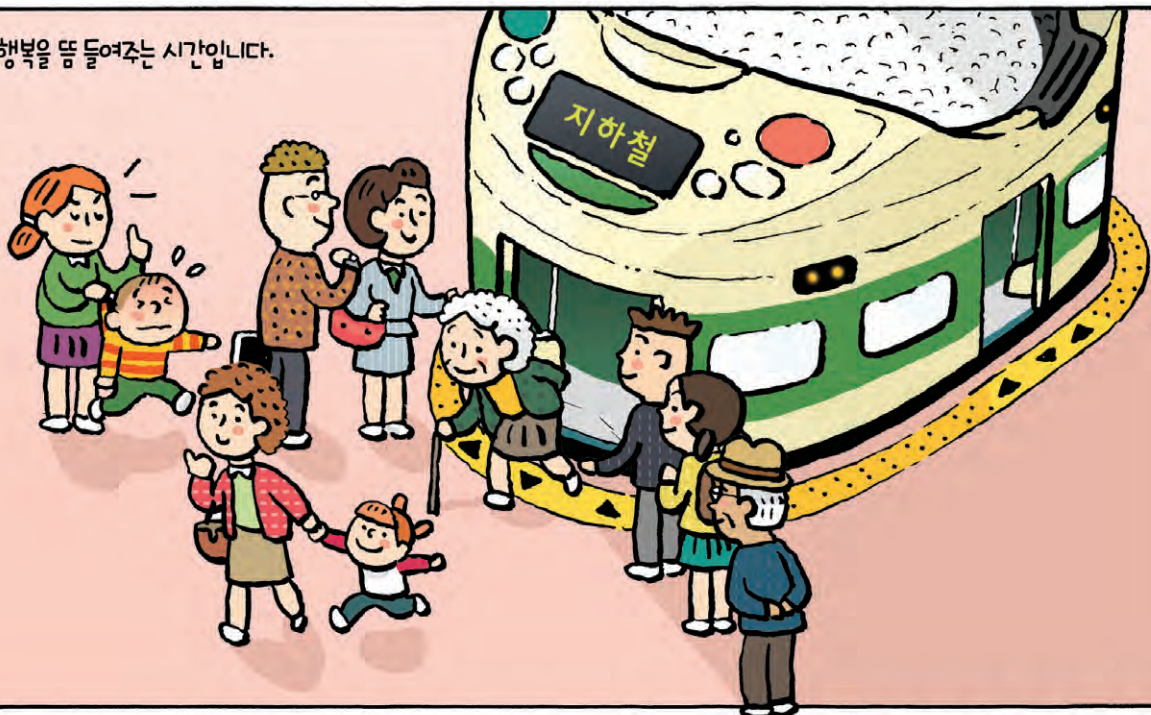
이처럼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박 교수가 장학사업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자신의 반생을 바친 의생명공학 분야에서 자신이 현장을 떠난 후에도 변함없이 연구에 매진할 젊고 유능한 인재를 키우고 싶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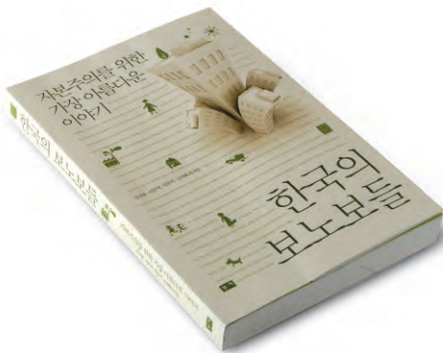
“우리나라 의생명공학 기술 발전을 위해선 고급인력 육성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10, 20대 초반 학생들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해서 인재를 육성해야 하는데 정부나 학교의 장학제도나 지원책은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이것이 늘 불만이었는데 어느 날 ‘내가 먼저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자각을 하게 됐습니다.”

박 교수는 “장학금 기부는 내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고 제자들과의 소중한 만남을 가능하게 해준 대학과 국가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G

글 · 이윤진 기자

기다림의 가치

구성 | 권우영
그림 | 안종만

지하철이나 엘리베이터에서는 모두가 내린 후 타주세요.

‘아름다운 자본주의’ 위한 따뜻한 이야기

일러스트 · 이우정

〈한국의 보노보들〉 안치용, 이은애, 민준기, 신지혜 외 지음 / 부키 펴냄 · 1만4천원

인간과 비슷한 동물로 보통 침팬지를 꼽는다. 그런 침팬지와 유사한 보노보라는 동물이 있다. 주로 아프리카 밀림지대에 사는 보노보는 평등과 평화를 사랑하는 동물. 다소 폭력적이고 경쟁적인 침팬지와 달리 주변을 끌어안고 받아들이는 심성을 지닌 유인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 ‘보노보’를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애칭으로 붙인 사람들이 있다.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경제연구소(ERISS) 안치용 소장과 함께일하는재단 이은애 사무국장, 삼일회계법인 민준기 전무,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젊은 기업가들(YeSS)의 신지혜 씨다. 이들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나눔의 기쁨을 실천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을 소개하는 〈한국의 보노보들〉을 펴냈다.

사실 기업은 이윤 획득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영리조직이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업체로 이윤 극대화보다는 사업체 또는 지역사회를 위한 재투자를 우선시한다. 따라서 취약계층 보호나 복지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다.

책은 이웃과의 나눔, 환경, 문화 소통, 노동의 가치, 참살이(웰빙), 장애인 등 사회적기업을 6가지 카테고리로 나눠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36곳의 사회적기업을 알려준다.

먼저 이웃과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대표적인 사회적기업으로 맛있고 정갈한 도시락을 만드는 ‘포천 나눔의 집 행복도시락’을 소개했다. 이곳은 도시락 판매를 통한 수익금으로 홀몸노인과 결식아동에게 도시락을 배달해 밥으로 나누는 이웃사랑을 실천한다.

환경을 생각하는 보노보로는 충북 청주시의 ‘삶과환경’이 꼽혔다.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일을 하는 이곳의 수입은 수거한 쓰레기의 무게에 비례한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자’는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자발적인 쓰레기 배출량 절감 운동을 통해 환경을 생각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문화와 관련된 사회적기업으로는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예술인 60여 명을 고용해 문화 취약계층 어린이와 주민에게 예술을 가르치고 정기적으로 급여를 주는 ‘자바르떼’의 이야기가 실렸다.

이 밖에도 장애인에게 노동의 가치와 꿈을 실어주는 현수막 제작업체인 ‘노란들판’, 장애인들의 발이 돼주는 장애인 관광버스 운영 회사 ‘한벗해피카’ 등이 소개됐다.

요즘처럼 경쟁이 강조되는 사회에서 ‘함께 사는 따뜻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보노보들의 땀방울을 보면 각박한 자본주의 현실에서 ‘사회적기업이 희망이다’라는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다. 유럽 등 선진 국가에 비하면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은 이제 막 싹을 틔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들이 꿈꾸는 ‘아름다운 자본주의’의 가능성을 느끼고 함께 독려했으면 좋겠다. G

글 · 이정화(국립중앙도서관 사서)

마음속 낙원

글과 그림 · 최영순

우리의 마음속에는 낙원이 있다. 원하기만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그 낙원을 불러내 일생 동안 그 속에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 다만 모르고 있을 뿐이다. – 도스토예프스키

Culture

'인도 무희' 애절한 사랑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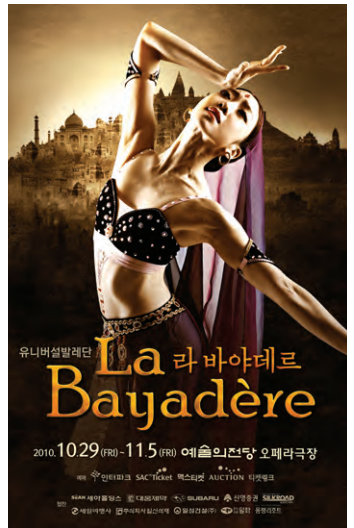
유니버설발레단 〈라 바야데르〉

유니버설발레단(UBC)은 지난해 창립 25주년을 기념해 공연한 〈라 바야데르〉를 관객들의 요청으로 올해 다시 무대에 올린다. 불어로 '인도의 무희'를 뜻하는 〈라 바야데르〉는 마리우스 프티파가 안무해 1877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극장의 마린스키발레단이 초연한 작품이다. 아름다운 무희 니키아와 젊은 전사 솔로르, 매혹적이지만 간교한 공주 감자티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가 신비롭고 동양적인 무대 위에서 극적으로 펼쳐지는 대작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유니버설발레단과 역사를 함께해온 노장 무용수와 샛별처럼 떠오르는 젊은 무용수들, 또 해외에서 초빙된 최정상급 무용수가 어우러져 화려한 무대를 선보인다. 특히 이번 공연은 오랜 세월 유니버설발레단의 간판스타로 사랑받아온 수석무용수 임혜경(39)의 고별 무대여서 의미가 남다르다. 임혜경은 1994년 유니버설발레단에 입단해 16년간 많은 작품에서 다양한 역할을 맡으며 한국 발레의 발전에 기여해왔다. 그는 10월 29일과 11월 2일 두 차례 무대에 올라 여주인공 니키아 역을 연기하고 유니버설발레단 수석무용수 자리에서 물러난다.

고별 무대를 앞둔 임혜경은 "내게 가장 잘 어울리는 역할이 니키아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며 "이번 공연을 마치더라도 영원한 니키아, 임혜경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소망했다. G 글 · 김지영 기자

일시 10월 29일~11월 5일 평일 오후 7시 30분, 토요일 오후 3시, 7시, 일요일 오후 3시(11월 1일 공연 없음)
장소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관람료** VIP석 10만원, R석 8만원, S석 6만원, A석 2만원, B석 1만원,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동반 1인까지 50퍼센트 할인 **문의** 070-7124-1733 www.sac.or.kr

•

● 창작극 〈천 년의 기억〉

우리 전통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공연. 천 년을 이어온 남녀 간의 사랑과 인연을 바탕으로 축원굿과 소리, 가야금 병창, 쌍검무, 택견 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일시 10월 30일 오후 7시 30분, 31일 오후 4시 **장소** 국립극장 별오름극장
관람료 일반 3만원, 학생 2만원,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동반 1인까지 50퍼센트 할인
문의 02-586-8605 www.ntok.go.kr

••

●● 연극 〈시라노 드 베르쥬락〉

배우 안석환, 김선경, 이명호 등이 빚어내는 낭만적이면서도 애절한 사랑 이야기. 독설과 유머, 재기 넘치는 유려한 대사가 압권이다.
일시 11월 4일까지 화 · 목 ·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수 · 토 · 일요일 오후 3시(월요일 공연 없음)
장소 서울 명동예술극장 **관람료** R석 5만원, S석 3만5천원, A석 2만원,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동반 1인까지 50퍼센트 할인(전화 예매 시 적용)
문의 1644-2003 www.mdtheater.or.kr

G20 SEOUL SUMMIT 2010 경제로 세계를, 문화로 미래를 이제는 대한민국입니다

저탄소 녹색관광 - 생태관광지 10선

Korea Be Inspired

이렇게 좋은데를 두고 넌 어디있니?

태안군 신두리 해안사구

순천시 순천만

창녕군 우포늪

서산시 천수만

평창군 백룡동굴

영주시 소백산자락길

진안군 데미샘과 마실길

파주시 서부DMZ

화천군 동부DMZ

제주도 거문오름

때 묻지 않은 자연을 담았습니다.

오솔길을 달리는 자전거에 파란 하늘을 싣고, 풀 섶 사이로 흐르는 맑은 물에 시간을 담그고...

때로는 예쁜 나비와 함께 걸었습니다.

환경친화적 저탄소 녹색관광이 지구 온난화를 예방합니다.

국민과 함께 세계로, 세계와 함께 미래로

2010 서울G20정상회의 (11.11~12) 서울특별시